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SeMA Biennale *MediaCity Seoul* 2014

할머니 라운지 - 목소리 저편
청취 아카이브
Grandmothers' Lounge: From the Other Side of Voices
Listening Archive

최상일, 김지연
Sang-il Choi, Jiyeon Kim

오디오가이드 텍스트북
Audioguide Textbook



<할머니 라운지 - 목소리 저편> 청취아카이브 오디오가이드는 최상일 프로듀서가 제작한 광범위한 음성 자료에 접근하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54개의 오디오클립과 3개의 <믹스 포 라운지>는 아카이브 탐험자들에게 각각 ‘선별된 재생목록’과 ‘감상용 믹스트랙’으로 제시됩니다.

54개의 오디오클립은 최상일 프로듀서의 해설자, 통역자로서의 언급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빌다’, ‘살다’, ‘놀다’라는 세가지 주제별 구성을 갖고 있지만, 청취자의 선택에 따라 무순서로 들어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를 위해 각각의 클립들이 개별 맥락으로 이해되는데 무리가 없도록 편집되었습니다.

<믹스 포 라운지>는 할머니 목소리 특유의 힘과 에너지를 담고있는 소리들을 모아 대화의 내용으로부터 자유롭게 구성한 감상용 믹스트랙입니다. 전시기간 동안 할머니 라운지 안팎 스피커존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클립명은 색인번호 - (편집자가 부여한)제목 - 방송날짜 - 녹음장소 - 제보자 - 러닝타임의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단말기 내 오디오파일 색인번호와 텍스트 색인번호는 동일합니다.**

오디오가이드 텍스트북은 오디오가이드를 들을 때 읽는 보조물입니다. 청취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할머니의 구술을 정리한 글을 중심으로 오디오가이드 자료목록과 최상일, 김지연의 대화가 함께 실려 있습니다.

모든 오디오는 문화방송에서 1989년부터 제작, 방송되었던 <한국민요대전>, <최상일의 민속기행>, <백두대간 기행>, <소리꾼 기행>의 방송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편집시 취재원본 파일이 아닌 방송본 mp3와 일부 wav파일을 사용하였습니다.

빌다

달아난 신령들

p.8 - p.12

- [1] 성주 1999. 12. 26 전북 무주 삼도봉 미천리, 김씨할머니 4'01"
- [2] 산제와 영등할머니를 위한 제물 1999. 10. 17 경남 함양군 백전면 운산리 중기, 박분옥 3'49"
- [3] 치성 2000. 9. 10 충북 단양 소백산 천동리 샘골, 박분남 3'59"
- [4] 용신제 2008. 3. 16 경북 칠곡, 우상림 2'37"
- [5] 당산제 1999. 10. 31 전북 장수 장안산 새터, 한계순 4'34"
- [6] 돌과 물 2000. 8. 13 충북 단양군 대강면 남천리 샘골, 이옥영 2'38"
- [7] 도신 1999. 9. 26 경남 함양 마천면 삼정리 양정, 최점달 1'33"
- [8] 기우제 2007. 12. 9 경북 봉화, 이상중 3'07"

여신들

p.12 - p.15

- [9] 영등할머니 2008. 3. 16 경북 칠곡, 우상림, 1'38"
- [10] 삼신할머니 1 2000. 9. 10 충북 단양 소백산 천동리 샘골, 박분남 1'56"
- [11] 삼신할머니 2 1999. 12. 5 전북 무주 덕유산 삼거리 상오정, 김씨할머니 3'46"
- [12] 다자고할머니 2000. 8. 27 충북 단양소백산 죽령산신당 매바우마을, 김성남 5'09"
- [13] 마고할머니 2000. 4. 9 경북 상주군 화북면 용유리 우복동, 이상준 2'20"

객귀물리기

p.15 - p.16

- [14] 퍼포먼스 1 2000. 8. 20 경북 예천 상리면 고향리 문드래미, 전삼순 1'35"
- [15] 퍼포먼스 2 2005. 9. 11 경북 봉화 구마동, 안창수 1'56"

비는 사람들

p.16 - p.19

- [16] 소점 2005. 9. 11 경북 봉화 구마동, 안창수 3'52"
- [17] 소별기 1999. 10. 10 전북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허판성 부부 0'47"
- [18] 조상신 2000. 1. 9 전북 무주군 설천면 대불리 불대, 전우석부부 2'26"
- [19] 잘못된 날 살을 끼다: 공방살 곳 2005. 6. 26 경북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 사지목, 김옥순 3'37"
- [20] 분수문 2000. 3. 12 경북 상주시 화남면 동관리 동터목, 명대세어르신 부부 5'10"

홀린

p.19 - p.20

- [21] 산신령 호랑이 2000. 5. 7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벌바우, 손한순 2'09"
- [22] 왈갈왈갈 도깨비 2000. 10. 1 경북 단양군 영춘면 남천리, 전우봉 2'47"

살다

먹고 사는 일

p.22 - p.27

- [23] 소키우기 2005. 9. 11 경북 봉화 구마동계곡, 안창수 4'28"
- [24] 나물캐기1 2005. 11. 13 강원 삼척 대이리, 김옥순 1'06"
- [25] 나물캐기2 2000. 8. 20 경북 예천 상리면 고향리 문드래미, 전삼순 0'47"
- [26] 나물캐기3 2000. 6. 18 충북 충주 미륵리 점말 하늘재, 양순영 1'38"
- [27] 나물캐기4 2000. 5. 7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벌바우, 손씨할머니 0'58"
- [28] 나물캐기5 2006. 3. 26 강원 평창군 도암면 병내리 진고개, 김씨어르신 부부 2'03"
- [29] 나물캐기6 1999. 11. 14 경남 거창 덕유산 산수리, 김금이 3'04"
- [30] 씨고 풀고 뚜드리고 꼬매고 2000. 5. 21 경북 문경 마성면 상내리 한실, 김월분 1'22"
- [31] 두레길쌈 2000. 4. 9 경북 상주군 화북면 용유리 우복동, 이상준 부부 2'28"
- [32] 농촌할머니의 도시유람 2008. 3. 2 경북 칠곡, 우상림 8'14"
- [33] 모심기 2007. 9. 30 전남 고흥, 정영엽 3'02"

전쟁과 나

p.27 - p.29

- [34] 나물과 전쟁 1999. 11. 14 경남 거창 덕유산 산수리, 김금이 2'36"
- [35] 유랑생활 2005. 6. 26 경북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 사지목, 김옥남 2'11"
- [36] 밥 안해주마 총을 디리대고 죽겠는데 2008. 3. 2 경북 칠곡, 우상림 5'07"

시집살이

p.29 - p.31

- [37] 되박 바까줘요 2000. 7. 23 경북 문경경북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당골, 정장옥 2'41"
- [38] 시집살이 노래 2008. 3. 9 경북 칠곡, 우상림 4'29"
- [39] 신랑시집살이 2000. 4. 23 경북 문경 둔덕산 수리봉마을, 김갑순 1'59"

기막힌 신세

p.31 - p.33

- [40] 산골사람 1999. 11. 14 경남 거창 덕유산 산수리, 김금이 1'36"
- [41] 신세타령 노래 2005. 9. 11 경북 봉화 구마동계곡, 안창수 1'48"
- [42] 아꾼이 2005. 9. 18 강원 태백 함백산 사내골, 김하야 3'42"
- [43] 아이농기 2000. 2. 6 경북 김천시 부항면 해인리 해인동, 이종출씨 부부 1'26"

놀다

p.35 - p.38

- [44] 산 1999. 11. 7 경남 거창 덕유산 상남리, 최주현 0'57"
- [45] 담배쌈지 2006. 4. 9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청학동 안말, 박인실 1'14"
- [46] 꽃노래 2008. 3. 16 경북 칠곡, 소리꾼 우상림 3'50"
- [47] 화전놀이 2007. 9. 30 전남 고흥, 소리꾼 정영엽 1'09"
- [48] 농사장원 2007. 9. 30 전남 고흥, 소리꾼 정영엽 2'40"
- [49] 술독 1999. 10 10 전북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허판성 부부 0'49"
- [50] 새쫓기 2007. 11. 18 경북 포항, 소리꾼 김선이 1'34"
- [51] 달님세 2007. 11. 18 경북 포항, 소리꾼 김선이 3'58"
- [52] 어디 가 손데 2007. 9. 30 전남 고흥, 소리꾼 정영엽 1'45"
- [53] 버스 탄 소 1999. 10. 10 전북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허판성 부부 0'47"
- [54] 말장난 #미색인 전북 김제군 금산면 장흥리, 서금례 0'30"

* 믹스 포 라운지
소리설치, 김지연

p.39

mixes for lounge
sound installation, Jiyeon Kim

- [55] 입 없는 새 birds without mouths
- [56] 비는 사람들 prayers
- [57] 끝나지 않는 후렴 unfinished chorus

p.40- p.43

**인터뷰 - 최상일, 김지연



빌다

달아난 신령들

[1]

성주 / 1999. 12. 26

전북 무주 삼도봉 미천리,
김씨할머니 4'01”

“이전에는 저게 인제 산지당이라고 산제 모시는거. 정월 초 이튿날 산제를 모시요. 그래가지고 초 사흘날 모두 가서 음복을 해요. 그거 안 한지가 한 5년 됐나봐요”

“5년?”

“예. 여기는요 저 점말서 해요. 저 아랫밀이라 하는데 여기 오면 탑을 쌓아 뵈어요. 그 소나무 밑에 요 내리가면. 여쪽으로 또랑가 쪽으로. 거 가서 인제 하고. 저 여 은미래라고 하는데 저 안골이라고 하는데 가서 깊은 데가 그래 하고. 그래”

“집에 또 삼신할머니 이런것도 있었어요?”

“예. 그 전에는 있었지. 그런데 이 중년엔 삼신 할머니가 뭐 어딴어요 병원으로 쫓아가지. 삼신할머니 없어요 인제. 또 용왕에도 가고”

“용왕은 어디예요?”

“물 물. 물에가 정성 드리잖아요. 밥해가주 가던지 쌀 가주 가던지 그래. 물에가서 정성 드려 가지고... 시월 시월달에 주당 많이 하고 삼월 삼짖날 좀 많이 하고”

“도신. 집에서 하는건 도신. 들에가 하는거는 용왕제. 산에가는건 산신제 지내는 거”

“동지서 밥 깨끗이 인제 이 햇곡속 우해 뵈다가 그래 가지고 해 가지고 방에 빌고 정제 빌고. 거기 내동. 또 인제 어데 모셔 놓고 소꿉이 찌다 모셔 놓고 그제 물 떠 올리고 아적마두. 한 초닷새까지는 그래 했어.

초닷새만 넘어가면 인제 물바가지 얹어놓고 안하지”

“바람 몰고 오는 할머니가요?”

“어. 바람도 몰고 오고 비도 몰고 오고 이랄 수가 있드라고요. 이래 지내 보면. 이제 한 스무날날 지내가야 바람이 2월달에 덜 불지”

“성주는 뭐 그전에는 도망도 잘갔다 해 샷 더만 지금은 도망 갔는가 안 갔는가 몰라 하하하”

“성주님이 도망을 가요?”

“도망갔다하데 잘 못하면. 으흐흐흐.. 그 래 갔다가 새로 또 가서 공들여서 가지고 또 갔다가 얹히고 이랬는데 지금은 허허”

“공은 어떻게 드려요?”

“어 인제. 좋은날 받아가 받아 와야지 어디가 있다 하모. 낭케 가 붙었다 하면 나무에가 받아 오고. 호호호 대추 나무에 많이 얹는다고 주로 그러더라고. 조상이 도망 가면 하하하하하”

“도망 가서 거기 얹아 있어요? 도망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점쟁이가 알지. 하하하하하 우리가 어떻게 알아. 있는지 없는지”

“집안이 잘 안되면 가서 물어 보나요?”

“꿈 자리가 시끄럽던지 어짜고 하면 물어보지”

“그거 모시는 게 재미구만요”

“이히히 그렇지요”

“그제 재미가 있었어요? 아님 겁났어요?”

“아이고 그런거 할라하면 깨끗이 할라하면 힘들지”

“귀찮지 않았어요 할머니?”

“그래 할라고 맘 먹으면 안 귀찮아요”

[2]

산제와 영등할머니를 위한 제물 / 1999. 10. 17

경남 함양군 백전면 운산리 중기,

박분옥 3'49”

“산제는 모싯어 우리 아버님이. 저게 산에 올라가는 산 기슭에 갈기다가 산제 모시면 참 뭐 음식할때 딱 금곶줄 하고 새 흙을 파다가 싸무라 캐다가 말짱 금터 놓고 목욕하고 제록같은거 뭐 오만 과일 같은거 다 야물어서 하룻밤 생물 다 채 놓고 전부 그래 가지고 채리 가지고, 밥을 우리는 해 가꼬 내가 해가지고 소지 여 다 좇불 땡기서 저게 좇불에다 소지 종우 땡기는거는 초는 따로 써 놓고, 어찌됐던가 재수 있게 잘 받으시면 그 소지 종우가 확확 올라가요 푹푹 뭉치가꼬, 푹푹 뭉치가 저리 싹 빨아 올려 그래 보면 제를 탁탁 이래 하고. 자손들 잘 되게 항상. 정성 그 정성으로”

“쌀가리를 찌가지고 쭉을 삶아서 읊아서 막 이래 가지고 고분고분 짜가지고 털어서 막 피아가지고 가리 섞어서 밥송을 푹 찌가고 떡보를 가지고 뚜드리 치야 탁탁 쳐서 반들반들하이 치네. 들어내 놓고 막 비벼 모두 콩고물 해가지고 참기를 자꾸 내 담고 자꾸 비비 던지고 여 세축 네축속치거든. 또 인자 비강이 맨들아. 이월 영등은 대앞에 놓는다고. 대를 꽃아 두고 제석님네 모시는데다 인제 찹살가리만 뽀사다가 뜨건 물에 반죽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비비서 끓는 물에 딱 집어넣어 삶아요 삶으면 똥똥 뜨거든 찹살가리 떠요. 그러면 건져가지고 콩고물 묻히듯이 딱 이리 다른 그릇에다 딱 담아 뵈다가 인자 제석님 앞에 놓고. 제석님이 즐긴다고 항상 비강이 하고. 새나물국

즐긴다고 쭉 뜯어다가 쭉 올라오는 거 고런 거 뜯어다가 나물 꽃다지조차 그런 거 밭에 가면 있거든. 고런거 뜯어 섞어가지고 그 래가꼬 국 끼리가지고 국 떠놓고. 제석님은 나물국을 좋아한다고 밥해 놓고 제석님 전에 인자 소지 올리고.. 제석님네 수고이라고 또 인자 소지종우라고 하나 달아놓고 물 한그릇 떠서 집떠발이 딱 해서 고 위에 딱 청해서 떠놓고 소지 하거든. 시방 그것도 없다 인자”

[3]

치성 / 2000. 9. 10

충북 단양 소백산 천동리 샘골,
박분남 3'59”

“지금도 지내. 거 지금도 아는 사람들은 거 치성 드리러 꼭 와요. 온 돼지 잡고 마실에서 싹 가서 낭구 비다 황덕이 해 놓고 밤을 새워요. 지금도 아주 치성 잘 드려요. 이 산을 밑에는 산이 제일이요. 산을 잘 우해야 온 동네 사람이고 이 들어오는 손님들이고 다 잘있게 해 달라고. 뭐 우리네만 대고 비는거 아니요, 동네 마실 사람들 다 비어. 소도 소지 올려 주고”

“소도? 원래 소는 안 올리는 거잖아요?”

“소도 올려요. 사람하고 똑 같아요. 소도 사람에 딸려 가지고 일 해 주고 밥 얻어 먹는데 몸이 성해야 되잖아. 새끼도 잘 낳고. 그기 온칸 제물이 아니래. 그리고 또 아는 사람들은 동네 들어 오면 소지 한장 올려 달라고 소지 값을 내고 가요. 이 큰 산에 소지 올리는게 얼마나 중한 줄 아오? 이 산 밑에는 산을 잘 우해야 모두 몸이 건강하고, 뭐든지 잘 되고, 잘 살아요”

“옛날에 영동도 무서웠죠. 딸을 데리고 내려오면 분홍치매 입혀 가지고 바람이 불고요, 또 메느리를 데리고 오면 비가 오잖애, 치마에 어룽지라고. 우리도 영동 많이 모셨어요. 2월 초 하룻날 모시면 떡도 한말 하고 나물도 많이 끓이고 뭐 하는데 냉겨 놓지 말아야 되요. 보리쌀 퍼 다그 그저 떡도 다 갖다 놓고, 나물도 뽑으면 다 갖다 놓고, 물도 한 동우 갖다 퍼다 놓고, 손갈도 있는 대로, 있는대로 다 갖다 놓고. 절도 있는대로 다 갖다 놔야 돼. 다 갖다 놓고 제사 지내요. 보름을 물을 떠 놔요. 이 장광으로다 꼭 아침으로 물 한 그릇씩 떠다 놓고 떠다 놓고 왔어”

“복날도 암만 없어도 복을 잘 했지. 인제 첫 농사 지 가지고 감자도 처음것 캐고, 밀도 갈았던거 빵아가지고 밀 부치개 굽고, 감자 부치개 굽고, 흰떡 하고 그래 가지고 수제에 해 가지 눈에 가잖아. 깃대를 하나 요만 한걸 빼 가지, 낭글 꺾어 가주 가서 깃대를 쫓아야 돼. 그래 논 머리에다 쫓고 빌잖아. 잘 되게 해 달라고. 그라면 그 떡을 그 모두 일하는 사람 주면 맛있게 잘 먹잖아. 옛날엔 복떡도 많이 해요. 초복도 하고 중복도 하고 말복에는 농사 다 짓다고 안해”

[4]

용신제 / 2008. 3. 16
경북 칠곡,
우상림 2'37”

“잘하는 사람은 심핀도 하고 쌀이 없는 사람은 밀, 밀가리 찌짐 꾸버가지고 지를 삼베 지를 묶어 갖고 물끼에 쫓아놔 서머지기 용신님네 나락 열댓섬 먹도록 해달라고 꿈

아놓고 절해. 지내다가 안지내마 농사 못지요. 저를 하나씩. 떡 심핀 댓개 아-들이 떡 주물라고 땡기어 마이 주워와. 숨어 있다가 빼오고. 그걸 지내다가 안지내마 두름을 다 파요. 물이 다 빠져. 용신님이 찌기미가 있어 안지내마 안돼. 안지내면 농사 못지요. 근데 사변나고 나서 용신님도 안지내고, 2월에 그것도 안하고 뭐 아무것도 안해. 사변 전에는 정월달에 산신제도 지내는데 안하면 안되거든. 사변 나고나서 그것도 안지내고 이월 영등 할머니 그것도 안하거든. 지금은 아무것도 안해요”

[5]

당산제 / 1999. 10. 31
전북 장수 장안산 새터,
한계순 4'34”

“3월 초에 가고 음력으로 3월 초에 가고. 인제 음력으로 가실이는 10월 초사흘날 가고. 그러면 마 길도 깨끗이 다 쳐서 매콤하이 해 놓고 나무도 해다가 막 불도 출지 가면 막 겁나게 불을 놔주고. 잘해요 그렇게”
“일년에 두번?”

“예. 일년에 2번씩 가요. 지금은 밤 대추 곱감 무거워서 못 가는 사람은 인제 쌀 하고 돈 하고 그래가주가서 하고, 저 떡시루 같은것도 찌갓고 가서 그 가서 찌는 사람은 찌고 인자 돼지머리 다 찢고. 아 동네마다 다 가 아주. 이 동네가 지금 여기서 이 우로 4동넨대 한동네는 그만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한날에 다 모이면 엄청나겠네 사람들이?”

“금가 하루 다 못해요 이틀씩 하”
“이틀씩?”

“이틀씩. 하루 다 못 해”
“정성이 부족하면은 뭐일 손해를 봐도 보고 몸이 아프던지 낙상을 해서 다치던지 뭐 시던지 표적이 돼 표적을 낸당게. 정성이 부족하면. 내가 고사리 꺾으러 가잖아 깊은 산으로. 깊은 산으로 고사리를 꺾으러 가면 막 번쩍번쩍하고 막 머리가 하늘로 올라가는것 같이 무서워. 그럴때는 막산신님을 들먹거리서 어진 산신님께서 어찌던지 이 마니가 눈에 띄지 말고 이렇게 무서움을 주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고만 하나도 무서움을 안줘 고마”

“무서운 적이 있어요?”
“아이고 막 머리 끝이 하늘로 올라가고 무서워요. 겁나게 무서울때가 있죠 산에 가면”

“옛날에는 당산제를 어떻게 세게 지내든지 참 막 몇 삼일을 기도를 해 놓고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했는데 하는데, 지금은 당산제도 안지내 고마. 전에는 하 당산제 못 지내면 사람이 하나씩 죽어. 전에는 염통에 여그도 큰 낭에 절하고 염등을 막 염등 할마이가 쑥떡을 좋아한다고 쑥떡을 꼭 하고 그라디, 요즘에는 암것도 안해도 탈도 없어. 전에는 저 염등 할마이 대접 할라고 나락을 넣어 놓으면 새가 까 먹으면 눈이 멀어 버리드라 전에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배졌버렸는가 우짖아 안해도 아무 탈도 없디야”

[6]

돌과 물 / 2000. 8. 13
충북 단양군 대강면 남천리 샘골,
이옥영 2'38”

“거 서낭당이라고 그 그는 여자고 지당골은 남자고 그렇데요? 그래가지고 똑 정월달에 한번씩 했는데 이제는. 사람 뽑아 가지고요 먹는거는 여기서 막 돼지 한마리씩 해 가지고 동네 사람이 그날 보름날은 아주 하루 놀잖아요. 소나무가 이통은 뿔끼라, 이통은 거진 되요. 그런기요 서낭베 버렸어요. 그래 그때 말이 많더라구요. 그래도 그걸 비면 안 되는데 그걸 비다가 그래, 그래도 뭐 괜찮데요? 그래도 괜찮데요? 그 낭글 갖다가 땃죠”

“아니 나무 땃 나무가 없어 지당 나무를 떼?”

“그래 그때 입질에 오르드라고요”
“어른들은 우리 가들 아버지 남양군들 돈 벌러 가 가지고 잘 땡기 오라고 돌을 이만치 쌓아 놓고, 차례 차례 상아 놓고 정성으로 그 물을 떠 놓고 칠성 모셨다고. 그래 부모만에는 아들이 그런데 배를 타고 그 탄 나라 가서 돈 벌러 갔시 ‘잘 땡기 오너라’ 하고 부모는 그거 그리 했다하지만 그것도 지심이라 그러 그기. 아주 정성으로 저녁마다 물 떠다 놓드라고요”

“매일?”
“매일이지요 그래 매일해, 매일이에요. 옛날에는 여 박샘에 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밭을 뽕개가 사과 송것잖아요. 그 샘 좋았지요. 참 물이 그 좋았어요. 그 물을”

[7]

도신 / 1999. 9. 26
경남 함양 마천면 삼정리 양정,
최점달 1'33”

“다 도신도 허지만은 도신 도신”

“도신 인제 다 없어졌어”
“우리가 인자 점심때 하고 가실일 하고 출
피아 놓고 인자 술으로 떡을 하고 막 도진
떡 갈라 묵고 그래 안했나? 술에 정제에 지
레 찌 가고 울목에 손 비비고 또 정제에 하
고”
“방에다 물 매다 놓고”
“할머닌 많이 해 보셨어요?”
“나 많이 했디다. 내가 1월 3일 생깃잖아 정
성 들여야지 제사하고 뭐이고”
“성주 조상님네 성주 조상님네 듣져봅시다
웃대서 부터 우리 즐겁게 반갑게 많이 잡
숯고..어찌든지 우리 아들래들 우리 어뜬지
바깥 양반 오드로 댕기든 댕장사 복장사 천
년 만년이나 몸 건강하게 넘어가도록 점지
해주고, 우리 큰 아들 작은 아들 가운데 아
들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육남매 손지 어
뜬지 댕장사 복장사 독끝에 갔다놔도, 쇠
작대기 매이로 몸 건강허이 잘 넘어가그로
점지해 주옵소사 그러고 제지 소지허고”

[8]

기우제 / 2007. 12. 9
경북 봉화,
이상중 3'07”

“날이 인제 디게 가물고 벼겅은거 노랑게
타들어가지 안니껴 그럼 여자들이 모여가
지고 상여를 해가지고 첫아들 난 사람만 가
가지고 동네 삼갈래길에 지르매를 여기 하
나 놓고 아들 난사람 연세많은 노인 하나씩
타고 샷갓 얹어놓고요. 물을 이고 와서 퍼
부으면 와 비온다 하고 하면서 소리를 마구
지르고 하나에 여남은번씩 퍼다 뒹요. 양
쪽에 편을 딱 가라갓고 퍼부으면... (길매

는) 소에 얹는게 아니고 삼갈래 길이 잇어
요. 느티나무 모테 잇는데. 열이면 다섯씩
갈라서 지르매에 올라앉아요. 넙덕한 샷갓
을 쓰고 안아있느면 물을 부으면 하느님 물
내리신다~ 그래요. 비내리신다... 퍼뒹요”
“비가 디게 가문해는 합강이라 하는데 가
가지고 용소라는데가 잇어요. 옛날 어른들
말로 꾸리를 한개를 풀엇대요. 꾸리가 다
디간대요 거기다가 아저씨가 개 잡아 자시
고 피를 묻히고 하면서 하느님 비오시라고.
피를 많이 뿌려너면 비가 와갓고 씻겨내려
가라고 아저씨들이. 그래 옛날에 가물재 그
리 고상스럽게 살앗다니까요”

여신들

[9]

영등할머니 / 2008. 3. 16
경북 칠곡,
우상림 1'38”

“영등은 정지에 물 떠넣고 솔잎개비 쏴아
놓고 오만 색형겅 곱아놓고 음식 하마 머니
갓다놓고 영등할매. 푸른솔가지에 색색 형
겅 달아놓고 영등할미 오시라 카고 바람이
불마 딸 디리고 온다하고 비가오마 메느리
데리고 온다 하고. 첫새벽에 물 여다가 떠
다놓고.. 아-들 아프마 영등할미한테 닦아
달라고 빌고. 이월하룻날 이튿날. 나락 열
어갓고 새가 까먹고 그 자리서 새가 죽어
버렸대. 그래 영검 잇엇대. 지금은 2월 영
등도 안하고 산신제도 안지내고... 사변나
고나서 다 없어져버렸어 총소리에 도망 다
갓어. 그렇게 난리 직이는데 뭐가 붙어잇
는고”

[10]

삼신할머니 1 / 2000. 09. 10
충북 단양 소백산 천동리 샘골,
박분남 1'56”

“아들이 아프면 지금은 병원에 쫓아 가서
곤쳐가지 오지, 그때는 뭘 병원이 있소? 삼
신할머니가 열살꺼진 따라 댕기며 키워 준
다는 기여. 아저씨도 삼신할머니가 열살꺼
진 키워 줘어. 얹어지면 일바켜 주고. 삼신
할머이가 꼭 따라댕겨 키워줬지. 지금도 없
는거 아니여 있어. 지금도 이래 얘기를 낳
고 뒹 뒹 할라면 삼신을 잘 겹, 진짜로 낳는
데. 돈이 흔해 노니까로 병원에 가서 배를
쭉 찌고 내 가지 오고, 낳아가지고 오고. 그
매런하고 점제하신 삼신할마이가 아이 탄
생활적에 좋게 탄생을 시켜 주고, 나는 좋
은 날 실시에 좋은 시에 받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나아 가지고 살아 야 되는데, 지금
은 안 그래. 까지 배만 좀 아프면 가 쭉 찢
어 가지고. 옛날에는 찢는 법이 없었어. 삼
신할마이가 다, 다 낳게 점제해 주지. 지금
도 가만 있으면 지절로 다 낳아요. 그래 돈
이 흔하노이”

“할머니는 아흠을 낳쥬 아흠?”
“나는 아흠을 낳도 거 보지도 못 했어”
“혼자 낳어요?”
“혼자 왔다 댕기 다가가도 낳고, 밥 하다가도
낳고. 그렇게 수월하게 낳고, 나아가지 고
생도 안했어. 업고 병원에 가고 약 맥이고
안했어. 지절로 컷어. 그렇다고 때려주고
뒹 그때그때 때리고 욱 하고 안했어”

[11]

삼신할머니 2 / 1999. 12. 05

전북 무주 덕유산 삼거리 상오정,
김씨할머니 3'46”
“애들 키우다 아픈적 없었어요?”
“에이고. 아픈 적이 와 없시요 있지. 난도
옛날 놓기는 많이 낳어. 죽은기 칠남매나
죽었어”
“칠남매나.”
“하. 옛날에는 홍역 했어. 한달에 둘도 죽
고 삼월 열하룻 날 하나 시마룻날 하나. 그
래마 고마 홍역에 그래 죽고. 홍역에 머스
마 여섯을 갓다 내 버렸어 내가. 그래도 살
아요. 나는 한도 많애”
“너무 많이 죽었다”
“그럼 지금 몇 남매?”
“삼남매”
“낳기는 열을 낳는데?”
“놓기는 열 낳는데.. 아유, 모두 쉬가지 해
모도”
(다른 할머니들) “와?”
“아이. 내가 이야기 하다 본께 담배 한대
피울라고”
“할머니 담배는 언제부터 태우셨어요?”
“머시마 그 한 달에 둘 죽어서”
“거봐 그렇다니까”
“그것도 친정 숙부가 담배 피우라 해. 인자
막 둘 갓다 버리고 미친거 매로 그래산게.
울어산게 담배 피우만 눈물이 굵치 진다고.
옛날 와 곰방대 있지요 그제? 왜 이 나무로
한거. 갓다 담배를 여 주면서 피우라 하더
라고. 한번 피우고 괜찮네. 신문지도 없어
그때는. 문풍지 조가리를 막 뜯어가지고 문
풍지 조가리를 뜯어가지고 갓다 담배를 넣
어서 뽀뽀뽀곰 피우고 그랬어. 그때가 스물
일곱이고 머시마 그 둘 죽을때는 서른 한

뎃 댌는가 몰라. 그것도 몰라요. 동네 고마
홍역만 들었다 하면 고만 우리 아들은 다
죽어 고마. 우짤지 고마 홍역에 다 죽었어.
그라고 난께 그것 갔다 내뻘리고 난께로 홍
역 안하는 예방 주사가 있다케. 그래 내가
손자를 낳으면 몇 만원을 해도 내가 그거
맞치야지. 그래 참 생각을 했었어. 그라고
나서는 고만”

“아이고 삼신 재왕님네 우리 아들 좀 나사
돌라고. 그러다 하나 죽고 나서 인제 하나
죽을라 하것데이 삼신 바가지라고 요레 해
논게 있거든. 그 놈을 가서 확 지 뜯으면서
삼신 치고는 자식 못 키우는 삼신. 해 가지
고 땅 바닥에 탁 보드리트릴라 칸게 지금
있는 우리 큰 아라. 막 내 아랫도리를 흠치
잡고 오메 그라지 말라고 막 울어. 그래서
그 놈을 방 바닥에 짜리 내 빌수도 없고 우
에 인제 올려 났어 그즈야. 났뒀다 날 밝은
날 고마 물에 떠내려 보내 버렸어”

“바가지 채로?”

“바가지 채로. 삼신도 자식 못 키우는 삼신
어데 있느냐 캐느 고마고마 삼신 바가지 가
가서 우두둑 지 뜯어서 한 보파리. 아이고
나 사는 게 나같이 고통 많은 사람 없시요.
이 세상에”

[12]

다자고할머니 / 2000. 08. 27

충북 단양소백산 죽령산신당 매바우마을,
김성남 5'09”

“다자고 할마이 유래는 전설에 의하면은
도적을 잡은 할마이거든. 요짜가면 도둑바
우 모탱이라는데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 세
금을 그 돈으로 안 바치고 무명이나 명주,

삼베 이걸 인제 신고 서울로 올라갔어, 저
호남지방에서. 그 도적들이 세금을 뺏고 사
람을 직이고 이랬는데 나라에서 그 도적을
잡을라고 참 숯하게 애도 썼다는데 도적을
결국 나라에서 못 잡고 그 할마이가 잡았다
네. 할마이가 잡는데는 인제 그 할마이가
변신을 해 가지고 그 도적때가 인제 굴 속
에 잠자고...”

“산에 불이 났어. 이 산 덕에 바람이 불어
저 산 덕에, 저 산 덕에, 저 산 덕에, 저 산 덕
에 막 갔는데 그래 나무에 불이 그렇게 나
노니 그 뭐 끌 수도 없고 바람이 불어 노니
다자고 할머니한테 술을 한되 받아 가지고
가서 그 저 불 좀 꺼 달라고 다자고 할머니
한테 술 좀 부워 놓고 빌었어. 난데 없는 마
천둥을 하면서 뭐 구름이 끼서 비가 딱 오
기 시작하는데 단 시간에 불이 꺼졌지. 내
눈으로도 보고, 몇 해 안되요. 한 20년 전일
끼야. 여 뒷산에서 나가지고 소백산 저거
막 전등기 올라 등개이 매도 바람이 불어
서 막 그 신불이라 그랬잖아 신불. 사람이
지른게 아니고. 그기 대변에 꺼지 드라고”
“누가 빌었어요?”

“이장이 빌었지. 그리고 6.25사변 때 이 동
네 사는 사람으로선 다친 사람 하나도 없어
요, 죽은 사람도 하나도 없고. 뭐 그것도 다
‘다자고 할마이 덕이다’ 이리지”

[13]

마고할머니 / 2000. 04. 09

경북 상주군 화북면 용유리 우북동,
이상준 2'20”

“그래도 사람 많이 안 죽었죠?”

“사람 하나 안 죽었어, 하나 안 죽었어. 인
민군덜이 저기 가정재라하는데 거기서 마
이 죽었어요. 군인들이. 근데 여 고 안으루
한개 안 죽었지. 우린 여 있다가 인민군들
구경갔는데? 저 말랑 가 가지고 쪼그말적
에 차 가구 하는 거 보니라고. 근데 이 동네
는 한번도 안 들어왔어. 이 동네 어찌 안들
어 왔냐하면 시방은 인제 하면 오겠지요 길
낮기 때문에. 그전에는 저리 큰 길있고 여
기는 뭐 누가 봐도 마을 이까지 생각을 못
하거든요. 인제 후퇴해 드갈갈 적에 낙오병
들이 딱 한번 거쳐갔어”

“아이고 피난처는 피난처네 여기가...”

“6.25 사변 때 그땐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여기 최고 많았어”

“여긴 뭐 산에 치성 드리고 하는것도 있었
습니까?”

“예. 시방두 지내유. 일년에만 가을에 한번
정월달에 한번 두 번 이리... 가을에는 시
월 초삼일날 주로 많이 지내요. 저 지당 다
해났어요”

“어디 가서 합니까?”

“저 지당 다 지났어요 마을 뒤에”

“저 위에 올라가면 있어요? 지당?”

“예. 산지당. 산지를 위한다고 산지당이라
고. 여기는 저 뭐 마고할머니라고 하지. 할
머니가 있기 땀에 이 창산은 무해무덕하지
할머니 때문에 아무래도 안 그래요? 뭐 산
에 뭐 땀기다가 뭐 허퍼 뭐 누구 하나 땀”

객귀물리기

[14]

퍼포먼스 1 / 2000. 8. 20

경북 예천 상리면 고향리 문드래미,
전삼순 1' 35”

“바가지다 물 담고 부엌에 땀 재 넣고, 고
춧가루 넣고, 소금 넣고 그레가지고 인제”
먹고 죽은 귀신아, 못 먹고 죽은 귀신아, 뭐
저게 올데도 갈데도 없는 귀신, 어리공중
에 떠 땀기는 귀신아 진수성찬을 해 났으니
까 이거를 먹고 썩 물러나라. 만약에 안 물
러 나다면 이 식칼로 가지고 배뻐지를 기리
가지고 무쇠 가매다 넣어 가지고 무쇠 덩어
릴 씨 가지고 선일에 소에다 갖다 넣을 터
일께로 바빠가라 그러면서 이제 칼을 획 던
지거든요? 못 할때는요 못 할때에는요 칼
이 획 안으로 돌아서요 안 나가요. 인제 수
월할 때는 획 나가지요. 칼끝이 획 나가야
만 고 자리가 칼을 주워 가지고 십자가를
그리 땀거요. 십자가를 인제 이렇게 이렇
게 기려 가지곤 고마 복판에다가 그 칼날이
한도로 나가도 콧 뽑고는 바가지로 갖다 얹
어 버려요. 그게 객구 물리는거예요. 아이
고 그것도 많이 했어요”

“아이고 객구 바가지를 들고 살았어요, 들
고 살았어요 옛날에. 아들 키우니라고 별짓
다 하고, 아를 하나 키울라 하면 반 무당 반
의원이 된다는기라. 근데 지금은 아프면 병
원 가잖아요”

[15]

퍼포먼스 2 / 2005. 09. 11

경북 봉화 구마동,
안창수 1'56”

“귀신아 들어봐라 하하하”

“아이 웃지 말고,

“에,참”
“아니, 다시 처음 부터. 봉화군 소천면 고슬리 간기동에 객구야 들어봐라 오다가다 죽은 귀신아 물에 빠져 죽은 귀신아 목살에 맞아 죽은 수살 죽은 귀신아 총각 죽은 녀이나 처녀 죽은 수살 귀신아 들어봐라”
“이래 놓고”
징가맹게 들에 가서 잘 먹는데 가지 이 산중에 뭐하러 왔노 / 거저 안 나가면 엄나무 바지에다가 지게 옥발에다 지고 말해 신질 쏘아서 / 물에 빠줄 터이까네 썩 나가 물러서라 안 나가면 이 칼로 배지를 쏘아서 진줄 쏙 빠져논다이 /
“그래요. 별걸, 별걸 자꾸 다 하라이 안 우수와요”
“또 웃었다 아이”

비는 사람들

[16]
소점 2005. 09. 11
경북 봉화 구마동,
안창수 3'52”

“우리 소 잃었던것도 찾았는데요. 점도 다 해 봤어요. 소를 3바리를 잃었으니 안 그래 니꺼? 오로지 점 바치 한테 가니 뭐가 안 물어 갔데요, 죽지도 안했다고요. 그래 동짓달 초순에 10월 그믐즉 가면 들온다 했어요. 있다가 할라니 눈이 막 와가지고 새 배뺨에 막 이런 터래기에 막 눈이 허엿게 묻은게 들어오데요. 그래 내가 모가질 끊어가 지고 불태기 대도요 다리가 길어나고 소가 운다 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니까네요. 소도 반가워 그래요 나도 반갑고. 한바리가 내

려 왔데요. 그래 소 들어왔다고 오로지 점 했던 집에 전화를 하니까네 소가 들어 왔 거들랑 밥을 한그릇 주라하데요 . 그래 밥을 한그릇 부워 주고 소르 가지고 올라 가지고 불혀 가지고 오라 그래요. 큰 소를 가져 가면 중소가 따라 오거든요. 가니까 그래 저 위에 두마리 있고 한마리만 내려 보냈데요. 그래 다 데리고 왔잖니꺼. 그래 점을 맞췄디더”
“참 난감하데요. 아들 처다 놓고 26살 먹어서 장개 갔는데 7살에 병이 들었거든. 그래 내가 그래 빌었어요. 이골 할배가 계시면 ‘그저 날 좀 살려, 날 잡아가고 저 어린거 살려 달라고’ 이래 가지 앓아 밥도 안 먹고 몇 날 몇일, 일주일을 고마 들 앓아가지고 이래 있으니 내 전에 손이 여기 올라 가니더. 산신을 대접하는건 돼지 한마리 잡고 과일하고 떡하고 바치고 인제 집에는 조상 대접하고 이랬어요. 그래 날을 받고 나니까네 첫달 스무 이틀날 우리 할배 제삿날이 딱 받데요. 그래가지고 저 스님을 불러 가지고 염불 제사 지냈어요. 참 제사 지냈다고. 항상 앓으면 이골 할배 고맙다고 내 눈사리 흙이 들어가도 난 할배를 안 잊는다고 약속을 했거든. 곤처만 주면 내가 일년 세번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 놓고나이 날 받아놓고 약 안 먹는게 약 한개도 안 먹었는데 뭐. 사진을 먼저 찍은거 하나하고 내림 찍은거 세번을 찍었는데 먼저 찍은거는 뚜렷하고 이만한게 보이는데, 없어요. 그래 이상하지도 하고”
“할머니가 기도만 했는데 그냥 없어져 버린거야?”
“그쵸, 약도 안 먹었어요. 약이 뭐래요. 그래 하고 나니까네 나도 곤쳤쵸 병을”

[17]
소빌기 / 1999. 10. 10
전북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허판성 부부 0'47”

“작년에 소가 지 시방 나와가 있는거 저거 낱아 놓고 개 깔아 줬던 방식으로 새끼를 옷 해 입혔더니 차 내 버려. 그래서 그 옷을 벗기 버리고 그래서 벗기 내 버리고 새끼 젓 줘라 우리가 몰랐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 더러운것을 입혀싸. 인제 벗겨 버렸응게 젓 줘라 젓 줘라 했다 사흘만에 젓 줘. 차 내버려 사람이 들어가면 탁 차 내버려.
“갈닥하든 소 죽어 대번에 죽어 거”
“사람도 차 버린당게”

[18]
조상신 / 2000. 01. 09
전북 무주군 설천면 대불리 불대,
전우석 부부 2' 26”

“우린 저 시어머님 모시났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일찌감히 세상을 떴는데 하도 원한이 돼 가지고 ‘나는 고향 땅에 와서 밥이라도 한술 얻어 먹는다’ 케 여기 고향 땅에 와서 아들한테 와서 있는다 하고 이리 오셨다고요. 그런데 그래도 10년 넘었지. 그전에 선대 조상들이 모셔 났었지.
그런데 고만 갖다 그만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없앴어. 집 구석이 막 뒤집어 졌어. 엉망진창이었었지. 그래가지고 내가 인제 아프드라고 자꾸 아프고. 제사 때만 되면 음력 4월달이 어머니 제산데 우리 양반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 하 인제. 그때 제사 때만 되면 오뉴월 염천 방에 들어가 죽는다고 앓아

샀네”
“제사때만 되면?”
“예. 병원에 땡기고 안되고. 하도 나는 그런것도 뭐 옛날에는 뭘 알았어? 그런데 점을 하러 가면 저 나가면 괜찮아 저이가. 그래 모셔났지. 그래가지고 이래 우리는 참 이래 조상님이 많이 도와주지. 우리 아들도 외국 갔다고요. 판 나라고서 살고 자손들 다 잘 살아”
“거 점쟁이들이 용하네?”
“아이고. 용하고 어찌고. 그리 안 아파. 자식들 다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자숙들이. 우리 아들 다 잘 살아요. 다 잘 살아요”
“저기다 쌀 넣어놔요?”
“예. 쌀 넣어놔요. 햇곡식. 인제 깨긋이 찌서 수대로 농사를 진게 깨긋이 찌서 갖다 놓고 갖다가 인제. 쌀 갈아 놓는 날 따로 있어요. 가실이인데 쌀 깨끗이 해서 넣어 준다고요”
“인제 또 해야 겠네?”
“예. 인제 해야쵸. 10월 음력 10월달에”

[19]
잘못된 날 살을 끼다: 공방살 곳 / 2005. 6. 26
경북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 사지목,
김옥순 3'37”

“아직 철 몰라 노니까 마 자꾸 집 생각을 해서 자꾸 울었어. 많이 울었어”
“열여섯에 이라면서요?”
“열일곱에 왔어”
“열일곱이면 철 다 들었지”
“에 안 들었어요. 안 들어가지고 엄마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울고 막”
“엄마 원망하고”
“예. 그래 또 철이 없어가지고 남자를 아무

빌다

뭐시 겁이 나가지고 아무 비켜 댕기고, 한
칠 년 그래 혼자 고생했어”
“도망 다녔어?”
“양반은 막 야단을 치고 막, 하라 그러고
막 이래”
“칠년이냐?”
“예, 칠년을 고생하고”
“오래도 버텼네”
“그래 우에다 보니께네 살이 끼었어요. 살
이 끼었는데 날을 좀 잘못 받은 모양이라.
내외가 둘이 만나기 싫고”
“공방살?”
“예, 그래 자꾸 피해 댕기고”
“그래도 얘기는 어떻게 났어요?”
“그 우에 난줄도 모르고 나고, 아버님은 자
꾸 막 꾸지람 하시고 그 동안도 크게 재미
나게도 못살다가 죽어 노이께네 원이 되요
지금. 세월은 좋은데 고마 좀 더 살다 죽었
으면 좋을껄”
“복자들을 데리다가 인제 또 점을 했지요
점을 하니께네 산신위하라 그러고 웃대 어
른들 위하라 그러고 거서 인제 팔 하고 메
밀 가루하고 가지고 두 내외 이래 돌아 앉
쳐 놓걸랑 풀어 주드라고요. 그래가지 인자
팔이 열댓개 되고 메밀가루 또 말아가지고
짜리낭글 이렇게 있는데다 동글동글하이
콩 같이 비비 가지고 여기다가 전부 쏘아가
지고 눈궁을 뚫어 놓고 팔을 가지고선 여기
다 찼불고 우리 등어릴 막, 둘다 등어릴 두
드리 뿌고 팔을 가지고요”
“팔으로?”
“짜다리 때리 뿌고”
“그 나뭇가지는 어떻게 하고요?”
“고거는 께 가지고걸랑 복지에 가져 나간
지 어디가서 치았는지 한빛귀에 갓다 치아
버렸어. 그래 가지 고만 사는기라 인제 상
황이. 또 불쌍하고 나도, 양반이 한살 더 작

았었는데 불쌍하고 이래서 ‘예, 이래 내가
이래 안 될동’ 마음이 돌아 서드라고요.
‘여자는 여자 행세를 해야지’ 내가 마음
을 다시 돌려 묵고”
“할머니가 이렇게 볼때 산신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마음속에?”
“있죠, 있고 말고.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
이. 그래 든든하잖니꺼”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무 산을 가도 뭐 그런건
몰라요”

[20]

분수문 2000. 3. 12
경북 상주시 화남면 동관리 동터목,
명대세어르신 부부 5’10”

“우리 아들 학교 갈 적에 중학교 보내서부
텃은 병이 났어요. 아파서. 그래서 그렇게
그 가서 기도하느라고 아들 아파서. 그래
서, 그래 된 기예요”

“학교 대니다가 학교를 못 다녔지요, 아파
서. 그래 산천에 이젠 빌어보는 수 밖에 없
다. 하느님하고 각 산천에 빈다고. 그래 뭐,
강원도 태백산이고 뭐 또 어느 분이 계룡산
으로 가 빌라고, 그래 계룡산에 같이 빌고
이렇게해설라무네 참 어떻게 약을 먹고 이
러니까 참 다 고쳤어요, 그래도”

“분수문이라고하는거 그게 기도문이야”
“그거 한번 해주세요”
“네”

빌다

분수 대로 분수 대로 당한 대로 당한 대로 분수 지켜 살아보세
남을 위해 일을 하고 남을 위해 글을 배우고 남을 위해 덕을 닦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야 도 닦으면 분수 분수

사람 위해 복을 빌어 남는 대로 가져보세 부기일월 개벽시는
원천상대 도덕시라 부모님전 효하기를 누구 위해 효하는가 부모 위해 나 위하고
이내 지성 다 바치면 천지감은 그 자리라 만반진수 바쳐놓고 애걸 복걸 비는 소리
비나니오 비나니오 동서서천 사방 하느님전 빌고 빌어. 오방정자 정히 하사
한백성 빠짐없이 부모님전 지성지호 다 바치고 형제간에 친에 친목 다 바치고
장유유서 본은받아 성인공덕 부하부순 화순하여 무량생생 세계창생 인인개개
영세불망 대동하여 무궁화로 이루어주십소사 천하공덕 먼저 알려주리
상대가문 그자틸세 세계창생은 어나할 거 없이 한몸으로 하여서
지켜나 보세 분수안에 극락이요 분수밖엔 지옥일세 하느님이시여

홀린

[21]

산신령 호랑이 / 2000. 5. 7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벌바우,
손한순 2’09”

“산골에서 인제 읍으로 다니려면 걸어 다
닐려면 옛날에 길이 있어요 뭐 있어요? 산
봉우리를 넘어서 인제 그 또랑을 인자 이렇
게 이리 해서 걸어 가셨는데 갔다가 한번
은 인제 달이 조금 이래 반달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한심하더래요. 백이십리를 갔다
가 제날로 돌아 올라니까. 그래서 이리 또
랑은 넓은데 물이 살살 내려가는데 큰 방구
가 있어서 그 우에 이래 앉아 앉으니까 불
이 이런게 돌이가 오더라네? 돌이가 이렇
게 자꾸자꾸 이렇게 가까이 오더래요. 그래
서 인자 할머니가 ‘아이구 산신령님 마 이
가려한 저 혼자사는 노인네’ 그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3.1운동 때 가서 마 만세 부르

다가 왜놈한테 돌아가시고 아들도 그래가
돌아가시고 그래 할머니도 혼자 우리 외조
모님도 혼자 ‘아휴, 가련 한 노인 혼자 사
는 거 업어 갈라면 업어 가시오’ 이러니까
‘어흥’ 하더래 앞에서 그러니까 인자 할머
니가 인자 놀랬지. 그래 우짜자고 그러냐
고 나 데려 갈라냐고 그러니까 마 그냥 불
을 앞으로 이래 비추면서 졸졸졸졸 뒤로만
물러 나가더래요. 그래서 인제 불을 요렇게
비차 가지고 집에 까지 오시는데, 그래가지
고 인제 집에 다 와 가지고 할머니가 들어
오면서 자는 애들을 불렀데요. 불려 가지고
‘야들아 산신령님 오셨는데 뭐 강아지라도
한마리 내 주라’ 인자 이러더니 벌써 건너
산에서 올라가 가지고 ‘어흥’ 하고 그냥 갔
부더래요. 그라고나서는 할머니가 친구가
돼 가지고, 그 후에 호랑이가”

[22]

왈각왈갈 도깨비 2000. 10. 1

경북 단양군 영춘면 남천리,

전우봉 2'47"

“거게는 아주 처음 가면은 집을 못 찾아와. 여기 영춘 사람들이 예전에 누에, 누에 칠 적에 고 뽕 따라 갔다가 못 찾아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사람을 찾으려면 막 돈 해 가서 찾아 왔는데 뭐. 물 따라서 자꾸 내려오면 은 영춘까진 갈텐데 글썽 내려왔다가는 또 역수로 해서 또 그 뽕 따던 데로 또 가서 헤매다가 또 내려 와 보면 가던 길이 아니고 딴 길 걷고 이래가지고 그래다가 상돈 그 사람들도 애 먹고 그래서 여기서 뭐 호랑이 물어갔다고 전부 돈 해 가지고 산판꾼들이랑 모두 가니깐에 바우 밑에서 자고 뽕수수한기 있더라. 도끼비한테 홀리 그렇겠지”

“젊은 사람들도 술이 잔뜩 먹고 뭐 저게 장봐 가지고 올라가는데 산 건 아래 그 어떤 골짜기 우에를 그카는데 그가 박절턴데 오줌 매려워서 오줌 누나라고고 ‘나 오줌 누구 간다고 앞 서 가라’ 이랬는데 암만 올라가며 오줌 누고 올라오미 봐도 사람 기침이 없더라.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올라 가지는 았았을텐데’ 하고 대로 인제 다뚝다뚝 내려 오다가 이래 들어 오니까 저 골짜기 우에서 술을 사 지고 가는데 동부살이 모두 엉켜가지고 자꾸 ‘놔 놔 이래’ 매 왈각왈갈 소리가 나더라. 정신 차리라고 막 소리를 맥낙같이 지르고 막 그랬더니까 고마 귀신이 할린기 뭐 고마. 그래서 데려 왔다데. 도깨비한테서 홀리서 갔다가”

살다

[22]



95 8

먹고 사는 일

[23]

소키우기 / 2005. 9. 11

경북 봉화 구마동계곡,

안창수 4'28"

“우리 여계 소를 이 골에 들래 안 댔는데 한 60~70 마리 메겼어요. 산에서 낳아 가지고 들어오고요, 가져 가지고 들어오고요. 그래 반들반들반들 한게 소가 참 좋아요. 우리 소 판다하면 입자가 많아요. 병이 없거든요. 산에, 그래 소금만 갖다줘요.”

“여기 소 길르기가 좋아요?”

“예, 옛날 여기 장 막아 놓고 소를 내 났으니 저래 막아 좋고 문 매로. 그래 소금만 한 짐 지고 가서 땅에 뿌려 주면 막 흠하고 먹어야 되요. 흠 안 먹으면 안되요. 소금 안 주면 소가 병이 생기고”

“60마리까지 메기 켜다고?”

“그럼요. 100여 마리가 이 골에 들어서 다리에 해에도 드가고. 사람 안 삶았거든요. 한 집도 안 살았어요. 옛날에 소 맥이 가지고 공부 시켰잖아요. 낳았다 하면 100만원 할킨데 소 금이 내려 가지고 큰 소 한마리 70만원가니까네 아무 죽도 한테 팔아 먹어 버렸어요. 안되데요. 그땐 소 금 있을때는 송아지도 100만원 했어요”

“소고기가 맛이 없어. 산에가 풀 먹고, 이런 옥수수 대공 먹고, 콩 깎지 먹고, 이런 고기로 해야 소도 병이 없는데, 요새 소도 병이 많잖아요. 사람 매로 자꾸 너무 잘 먹어 가지고. 사람 병이 왜 많은줄 아니까? 공기 나쁜데다가 전수 햄버거 나는 그 못 먹니더

살다

아들은 잘 먹두구만은. ‘야 나 이거 못 먹겠다’ 못 먹어요. 간스메 왜 고기 싹싹 베 논 거 그것도 못 먹을래요. 그리고 느큰해 멧 먹어요. 촌 구석 컷는 사람이 그걸 먹을 수 있니까 못 먹지. 도시에 있는 사람 운이 없어, 맛이 없어 못 먹는다 하는데, 우리 아 또 래들 여 사다 간 사람은 괴로웠다 해요. 이 런게 괴로웠다 하고”

“주인을 알아봐요. 남의 목소리는 안 들어 줘요”

“어떻게 불러요 소를?”

“어-와 그럴때도 있고 너-와 너와 그래요. 그럼 소가 ‘엄마’ 하고 와요. 어-와 그러는 사람도 있고 너-와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 래도 안되면 저 등갱이 사 가지고 사람 인 적, 지 목소리를 소가 알아 듣도록 불러요. 소리르 지르든가”

“어떻게?”

“‘음마 내 여갔다 이리 온나’ 하면 다 알아 먹어요. 너와 너와 그래도 안 알아 들 으면 등갱이 나가서 그러면 주인 목소리를 알아요. ‘너-와 얼렁 온나 너-와’ 이래요. 그래도 소 맥일때가 좋았니더 내가 한창이 라고”

[24]

나물캐기 1 / 2005. 11. 13

강원 삼척 대이리,

김옥순 1'06"

“엄청 먹었지요. 나물을 계속 여드레를 땡 기며 뜯었다고요 계속 날마다. 그래도 그 다 먹어냈으니 어떡해요. 옛날에는 낭그 다 해 때고 이러니까네 이러니까 나물도 나고

살다

저 큰 재 같은데도, 저 덕향산 저리로 가면 나물이 짹 찼어요 아주. 날마다 가죠 뜯으 러. 가면 아주 한 짐씩 뜯어 가지고 와요. 내 가 기운에 못 가져 올 정도로 이렇게 뜯어 가지 가져 와요. 뜯어 가지 오면 또 그 이튿 날 집에서 어른들이 삶아서 말립 줘야요. 삶 아 말리우 뉘면 또 그날 가 뜯어오면 또 그 이튿날 또 삶고 삶고. 덕향산 꼭대기로 올라 가야 되요”

[25]

나물캐기2 / 2000. 8. 20

경북 예천 상리면 고향리 문드래미,

전삼순 0'47"

“옛날에는 고사리도 꺾어다가 팔고 그 삼추 뿌리라고 있어요, 그거 백출요. 그것도 캐다 가 또 이제 풍기장에다가 팔고. 이젠 나물 취, 갸추, 미역추, 가새추 또 부지깽이나물 이라고 또 있어요. 각시나물이라 그러는 것 도 있고 뭐 순가락나물이라 그러는 것도 있 고 뭐 짐빠나물이라 그러는것도 있고 거무 노리, 또 인지 저기 맑은딱지라고 저 만한기 있어요, 삶아 놓면 다 맛있어요. 인제 묵나물 하는기 인제 흠추, 흠추를 가지고 곱추라 그 러드라고요. 고추라 그러는데 그게 저기 묵 나물 해 놓으면 참 맛이 좋아요. 그리고 인제 다래순 뭐 고취재 나물 그런거 인제 봄 되면 여 많이 들어와요. 저 저런 앞 산에”

[26]

나물캐기3 / 2000. 6. 18

충북 충주 미륵리 점말 하늘재,

양순영 1'38"

“영감도 죽고, 그래 내 혼차 아들 오남매 키

우느라 디질 뻔했지 뭐. 뭐 나물만 먹고 살 았어 나물. 동냥도 할줄 모르고, 장사도 할 줄 모르고, 그냥 나물만 뜯어다 맥여서 아들 형제 딸 삼형제 키우는... 죽을 고생 하고 그 래 살았어”

“할머니, 나물 뜯으러 다니던 얘기 좀 해 보 세요”

“나물 뜯으러?”

“뭘 나물을 뜯었어요? 어디가서?”

“보리가서 나물만 먹고 사는데 나물 뜯지 뭐”

“무슨 나물이에요?”

“아무 나물이나 뜯어 먹지, 나물만 먹고 사 는기 뭐”

앞집에 큰 애기 나물가세 뒷집에 큰 애기 나 물가세 / 나물가세 나물가세 모시대 참나물 줍줍이 뜯어 놓고 / 나물가세 나물가세 앞집 에 김도령 꼴비러가세 / 뒷집에 김도령 꼴 비러가세 / 안들미 깔다리 쓰러진 골로 꼴 비러 가세 / 뒷집에 큰애기 나물가세 앞집 에 큰애기 나물가세 / 올라가는 올고사리 내 려가면 늦고사리 줍줍이 꺾어노혜 / 망태기 차거든 가세 다 꺾었나 나는 대리키가 안차 서 못가겠네 /

[27]

나물캐기4 / 2000. 5. 7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별바우,

손씨할머니 0'58"

“더덕도 캐고 도라지도 캐고, 또 고사리 날 적에 고사리 뜯고, 나물 나면 또 나물 뜯고, 참나물 또 나면 참나물 뜯고 가을되면 냉이 라 하는 버섯 많이 땡겼잖아요? 그것도 하

지, 또 송이 따지, 찬바람 나면 굵더더기 따지, 또 인자 여기 또 도토리. 가을이 되면 또, 거기 많이 나면 도토리 줍지. 매일 여여 산에 뭐 참 여 부자산이라요 부자산. 나만 부지런하면요 남한테 참 돈 꾸러 안 갑니다. 옛날에는 아주 가만 뭐뭐 한망탱이식 캐오고 했는데 하도 사람이 여기 이래 저매구져 논께요 없어, 불어 나는데 없어 옛날엔 가면 그냥 모시대 참물이 벌 하고요, 낮으로 깎아서 막 지게다 막 척척 짚어지고 땡겼어요. 지금은요 하도 그 뿌리도 캐가지고 나물도 지 뜯어 가지, 거기 없어요”

[28]

나물캐기5 / 2006 .3. 26
강원 평창군 도암면 병내리 진고개,
김씨어르신 부부 2'03”

“옛날에 그 나물 뜯으로 참 산을 펴펴 날아다니셨었는데”

“그럼, 옛날엔 아주 산에 그 황병산 노인봉 글로가 해 가지고 오잖아. 안개 산 개자니로. 아주 멀리가 몇 십리틀, 몇 십리틀 가서 산에 가서 이산 저산 넘어 땡기고도 뜯어 가지고는 오면 먼데 가며 한포기라도 더 뜯을라고. 그 아주 푸대가 짐이 찬 것도 또 한개라도 더 뜯어 가지고는 보우다 싸서 여기다 또 엮고 또 잡아 이고 지고, 그래 나오면 그놈의 기정네 몇일 먹으면 되지만 하루만 먹으면 없어. 없어지니 또 뜯으러 가야지”
“식구가 많아서 그런가요?”

“예, 그 전에는 우리 열네식구까지 됐어. 시누들 있고 시동생 있고 뭐 동시 보고 이래가지고 참, 많이 식구가 사니 나물도 뜻대로 못 하겠어. 동시는 나물을 그래 안해 오

고 집에서 그냥 밥이나 해 먹고 있으라고 새덕이야. 그래 내 혼자 가서 그 이 동네 사람, 다 그랬어요 동네.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뜯어 가지고 점심 밥도 없어. 아주 강넨이살이 호간 섞인거, 나물밥 장하고 싸가지고 가서 나물 또 점심 때 되면은 먹고는 또 뜯어 가지고 어뎜때 배 고편때가 많지 뭐요 아주. 그 지고 나오자면 아주. 그래 어뎜때는 나물이 그러 없어 가지고 이산, 저산 넘어 땡기면서 뜯다 보면 해가 저요. 해 어두우면은 또 지고 나오고 어뎜때 지고 나올때 이래 산을 쳐다 보면 달이 환해”

[29]

나물캐기6 / 1999. 11.14
경남 거창 덕유산 산수리,
김금이 3'04”

“여기 뭐 취나물도 나고 고사리도 나고 옛날에는 저런데 수삼판이 터져 나논께 수삼판에 거게 마 불이 많이 나거든요. 마 산도 많이 깎고 이랑까 마 고사리 더덕 산더덕 그런거 많이 나는데 시방은 산이 짓어 갖고 없어져요 자꾸. 고사리 더덕 뭐 취나물 똑깎나무 그 놈 뜯어 가주와서 찌지고 그래 갖고 그걸 갖고 연명을 많이 살았어요”

서마지기 요 논배미 반달겉이 남았구나 /
니가 무슨 반달이고 초성달이 반달이지 /
다풀 다풀 다박머리 해 다 진데 어디를 가
노 / 올 어머니 산수야 당에 젓 묵으러 내
가 가요 /

[30]

씨고 풀고 뚜드리고 꼬매고 / 2000. 5. 21

경북 문경 마성면 상내리 한실,
김월분 1'22”

“시집살이도 하셨겠네?”

“어이구 옛날에야, 지금에야 질쌘 안 해도 뭐 잘 먹고 잘 입고 하잖아요? 아이구 그럴적에는, 그럴적엔 명 앓고 가리고 타고 갖고 자가야 또 날아가이고 또 베 짜고. 아이, 질쌘도 많이 했는데 인제는”

“명주 질쌘하는 얘기 좀 자세히 해 보십시요. 처음에 인제”

“처음에 그걸 따 와요”

“그 따는게 여름이예요 가을이예요?”

“가을에 따지, 팔월달에. 피아 가지고 이제 좋은건 좋은것 대로 하고 인제 그래가지고 그 놈을 인제 말려 가지고 또 씨기를 인제 이래 이래 놔왔잖아 미기 가지고, 또 그 놈을 앓은건 놔 두고 씨를 인제 놔 두고 활을 매아 가지고 활을 매아 가지고 이래이래 타잖아요? 타면 또 그 놈을 인제 숙구때미를 해서 요래만큼숙 떠서 요래 요래 비비면 똑 요마콤 하잖아? 그래 물레 채려 놓고 그 놈을 해서 들고 물레 소리 저기서 하데요 저게서. 그래가지고 또 날아 가지고 베를 짜 줘야 많이 했어 질쌘도. 그적엔 그래도 거기 모시 그렇게 키울꼬? 그건 쌀으면 씨야 되고 풀 해야 되고 뚜드리아 되고 꼬매야 되고”

[31]

두레길쌘 / 2000. 4. 9

경북 상주군 화북면 용유리 우북동,
이상준 부부 2'28”

“상주 옛날에는, 옛날에 등 있잖아요 등, 등? 그거 가지고 마당에 막 여기 저기 달아놓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요. 다 모이면 인제 밤에 호박, 칠월달에 호박 누런기 있으면 그 호박하고 콩 넣고 인제 또 밀가루 풀어서 가 옛날엔 밀가루도 집에서 헹기지. 그래가 인제 밤참으루 하나씩 해가 한 그릇씩 퍼 먹어가며 그래 그랬는데 그럴 땐 그래 참 재미있었어요. 요즘 말하면 한 2시 될 때까지 인자 이런 채통으로 하나 삼지 삼아. 그래 인자 삼아주고 또 낼 저녁에 저 집, 이제 돌아가면서 삼는기여. 집집에 그래 아주 풍습이지. 재밌어, 그럴땐 그기, 칠월에. 여름에 인자 삼을 빗겨 가지고 삼 삼을 때라. 다 짜가지구 인제 옛날엔 메느리 둘 두면 둘 앞으로 두고 셋이면 셋 앞으로 주면 말하자면 먹 머르고 줘요. 그럼 인제 자기가 해가 자기 식구 입히는기라. 말하자면 시어머니가 인제 작은 며느리 큰 며느리 인제 먹 모르고 나뉘요. 그럼 인제 그거 해 가지고 자기 식구 자기가 해 입히고 그러드라고”

“명도 그렇게 갖고 물레질 무명질쌘 할 적에 그것두 인제 돌아가민 해요. 우리는 옛날에 그 상주함창 중거리라고 오서방네가 한 30-40호 살었어”

“우리 문중에?”

“그 집에만 몇방이고 가서 차리고 해요. 그래 하마 이 집에서 짜서 내면 저집에 인제 또 짜서 내고, 그래 돌아가면 하니까 인제 더 쉬었나봐요. 시방두 그 시절이 좋아요”
“그 땐 잠도 못 자고 밤에도 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때는 자브러운 적도 없어. 그래 밤새기 하고 하다시피 해도. 옛날

에는 막 목욕탕도 시방은 집집마다 있지만
없잖아요. 그러마, 큰 내가 잊거든요. 동네
사람 다 가서해요.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남
자들은 남자들대로. 근 오서방네들은 전부
며느리네들 딸네들 이래 뭐 목욕간에 가면
그 놀러 가는거 밤에”

“밤에?”

“예”

[32]

농촌할머니의 도시유람 / 2008. 3. 2

경북 칠곡,

우상림 8'14”

“아들 공부도 시키고 아니면 못살아. 그때
뭐 별이가 있나 남자도 별이가 없는데”

“대구 대신동 가마 옷 많거든요. 옷따다 팔
고 초치원 양말도 팔고.. 여름은 난닝고 겨
울엔 한복 바지저고리도 팔고 옷감도 팔고.
전라도도 갖고 거기 장사 잘해요. 경상도
사람 거기 다 가. 거기는 장이 먼게 장에 안
가 앉아서 사지. 전부 들에 가서 일하고 나
무하러 가고 남자는 놀고 여자가 다 해. 그
래 장에 안가 못가. 잘하면 한동네 들어가
면 한보따리 다 팔아”

“낮선 동네도 자꾸 땡긴게 아는 동네 되고.
가마 모도 나를 좋아해요. 가지 말라고 하
고 나를 기다려. 탄 데 안사고 경상도 아짐
씨 기다렸다고 하고.. 그래 장 아는 데만 갔
지. 사람 좋아요. 인심 좋아요. 저그도 그래
우리가 경상도 사람 다 먹이살레...”

“그런데 한번 그거 전라도 경상도 난리 안
났능고. 광주사태 그 뒤에 갔다가 맞아 죽
을 뻔했어요. 식당들어갔는데 밥먹으라 카
는데 당신 경상도 사람이지 다 때려죽인다

캐.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청년들 다 죽
인다고.. 그래도 밥은 주데요. 탄 사람들도
가서 죽을 뻔하고.. 옷보따리 뺏어 다 내버
리고.. 그래 조금 잇다가 가니까 갠찮데요”
“전라도만? 절라도 강원도. 전라도 한번 짝
풀어먹이 노마 강원도로 가 강원도도 잘
사요. 외상 알아놓고. 외상 안노면 장사 못
해.”

“곡식 나오마 전진 고봉으로 줘요. 쌀도 깨
도 콩도. 거기는 씻어줄줄 몰라. 그거 가져
오마 득을 마니 봐. 근데 여기 가져오기가
힘들어. 버스에 들어올리느라고 사람 죽어.
그래서 내 지금 많이 아파요”

“강원도 가면 잘사요. 강원도도 인심 좋아
밥도 잘주고. 여 알기로 강원도 못산다 해
도 안그래요. 양반들은 거기 다 살고. 왜그
러냐 하면 전부 갓 쓰고 돌아대니고.. 강원
도 강릉 가가지고 시내 방 얻어놓고.. 전부
양반이라”

“충청도가서 장사할꺼면 애가 터져 죽어.
말이 느려서 아 그래 살래요 안 살래요 그
라마 안사요~~ 느려. 애가 터져 몇집 갈
꺼 시간 다 뺏다고.. 썰기 지끼소 하마 뺏
이 썰기 지까.. 내 말 문알아들어요. 나도
문알아듣고”

“서울도 마이 갓어요. 영등포도 잇었고.. 서
대문에도 마이 잇었고 대방동에도 잇었고.
거기 전라도 사람 많더라 전라도 사람 만대
면 장사 잘돼. 본토백이 여자들은 아주 깐
깐하고 문도 잘 안 열어줘요. 벨눌러도 안
열어주고 아파토 들어가가지고. 나나쁜 사
람 아니다 문좀 열어주소. 사람 뭐 다 나쁜
줄 아는겨. 옷좀 사소. 쉬어나 가자. 하고 보
다리 풀러놓으면 한참 앉아쉬면 팔 수도 있
고. 첼엔 문도 안열어줘요. 서울 사람들 인

전쟁과 나

[34]

나물과 전쟁 1999. 11. 14

경남 거창 덕유산 산수리,

김금이 2'36”

“산에 가서 인자 두깁 나물이라고 있었어
요. 그걸 뜯고 수르치도 뜯고 뜯으로 가 갓
고 저 막골 골짜기로 갔디만은, 그날은 해
필 여 창신이라는 동네가 있었거든요. 그
서 막 빨갱이가 들어가 털어 가지고.. 막 명
지 짜논 거 명지 삼베 짜논 거 삼베. 그놈의
물 거 있는 거 다 끓여지고 저 산으로 오는
기라요. 우리는 인자 말하자마 그 산에 인
자 물(먹을) 거 나물이라도 먹것다고 뜯으
로 갔거든요. 빨갱이가 오늘 아죽에 뒤 막
골로 찾아 갔다 이런 소문이 난게 또 인제
연락을 쳤것지요. 북산서 포알이 날라오는
데 저 막골 골짜기 마 널핀하이 늘찌는 거
라요. 그래 인자 아유 저거 암만케도 우리
보고 쏘는 갑다. 인제 빨갱이는 다 올라갔
거든요. 올라가고 난 뒤에 포알이 자꾸 우
리 앞에 떨어지는 거라요 막. 떨어 졌는데
참 그 올산택이라고 그 한 김가라고 우리가
언니가 하나 있어요. 그래 인자 두분이 막
골 산예를 나물을 뜯으로 가가지고 그 인자
둘이 그래 뻘었는데.. 그래 인자 포알이 나는
뒤 따라 나르고 그 아무머이는 앞에 가면서
큰 덩불고개 있는데.. 포알이 탁 맞은게 그
이 뭐 박살이 되어 나르는기라요. 나르니
께 그 인자 언니는 허벅지 여 맞아 가지고
그때는 뭐 옷도 여름인게 봄센게 얇아 갖고
이래 탁 맞은게 마 허벅지가 맞아 갖고 열
이 들어가지고 고마 절뚝 절뚝 접니꺼 절지

요? 나는 또 그 안 맞것다고 피한다고 피하러 가는데 고자리 섰으면 게안다아이요? 그런데 자꾸 피해 나갔거든요? 피해 나간데 곧장 날보고 쏘느것 같아요. 나물보따리는 들고 옛제 또 인자 그 양반도 짚어 졌제. 이래 가꼬 시오마시는 막 집에서 사람 죽었다고 막 포알이 늘썰샷제.. 자기는 죽든가 우짜든가 며느리 날 살릴라고 또 인자 집에서 인자 나오는기라예. 용악아 용악아 불러 샅는데 집을 들어가기께 뭐 집에는 뭐 난리났지 뭐. 살아가 온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포알 맞고 다닌다고 막 이래사면서 포를 한사람은 맞고가 막 걸뚝거리며 그리 안 드갔요. 죽을 고비 몇번 넘갔요”

[35]

유랑생활 / 2005. 6. 26
경북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 사지목,
김옥남 2’ 11”

“제주도가 사십년 살다 나왔는데요. 그 여 나온지가 인제 한 십년? 십년 조금 들 땀어요, 나온지가. 시집은 여기서 갔는데 6.25 사변 때 그냥 남자고 얘기도 다 잃어 먹어버리고요, 혼자 그 정치 없이 가 가지 있다가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어요. 그때는 뭐 고향에서 재미를 못 보니까네 아무것도 듣고 보도 안한다고 그 인제 내가 튜거지 뭐요. 가 가지고 뭐 고향에도 안 알리고 언니도 한 7년만엔가 오니까네 말 소리도 못 알아 들어요. 왔다갔다 하다가선 나이 많고 하니까네 고향 생각나서 들어”
“6.25때 그럼 영감님 돌아가신 거예요?
“빨갱이들한테 뺏겼조 뭐요 말하자만. 그때 군인도 아니고 진영으로 여 방위 군무 같은

거 뭐 하잖아요? 그 책임을 지고서 그 노루묵이라는데서 하다가선 그냥 빨갱이 시대 좀 땀잖아요? 그때 잡혀 가버렸어”
“이북으로 갔어요?”
“못 가지요. 중간에 죽여 버리지요. 빨갱이들이 인제 군인들이 다시 이쪽으로 복귀해 나와 본께네 가다났던 사람 다 죽이고 가버렸어요. 다 죽이고 70몇명 72명인가 3명인가 여 널목재라고 있다 그러데요? 노루묵 내려가 저 여물재 가는데, 가다놓고 있다가 그 인제 군인들 오니까 저 도저히 못 살리겠다 그래 빨갱이들이 나오라 해가 전부다 이제 그 가다났던 사람 다 죽이고 갔다 그래요. 근데 찾으로 올라오니 그때는 애기 안따라가 찾아 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찾아가 가지고 신발도 보고 찾고, 애 웃도 보고 찾는다 그러는데 전부 뭐 열 사람씩 묶어가지고요 그냥 칼로 찢러 죽여 노니까네 못 찾겠더래요. 얼굴을 몰라가지고. 잡아가는걸. 이야기 다 할라그러면 뭐 해 볼 수도 없어”
“그러네.. 괜히 물어봤네 내가”

[36]

밥 안해주마 총을 디리대고 죽겠는데 /
2008. 3. 2
경북 칠곡, 우상림 5’ 07”

“열다섯때 시집갔거든. 일본놈들이 잡아가는 바람에.. 그때 전부 다 그렇게 시집갔어요. 울엄마가 어디 갔다 오디만 잡자기 치운다고 하데요. 시집이 뭇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나 어린게 뭐 알아야지. 간게 뭐 시어마이도 있고.. 사실 우리집에 올라고 만날 울었죠. 뭐 밥도 안먹고 낮도 설고 그래 못살겠어”

“신랑은 모르지요 뭐 쪼매 살다 죽어버리니.. 한창 난리 났거든요. 스물세살에 사변 났어요. 신랑 죽어버렸어요. 그 때는 군대고 뭇이고 들에 간사람 그대로 잡아가 버렸잖아. 지게지고 가는 사람들 지게 지고 그대로 붙들려가지고.. 다 끌어가고 아이 무섭드만... 서른명이 한 부텐데 나가고 들어오고 만날 밥해주고 보리쌀 곱삶아갖고 밥해주고.. 남의 소 잡아갖고 와서 소고기 찌져갖고. 밥 안해주마 총을 디리대고 죽겠는데...”
“미제라는 골짜기거든. 골짜긴에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근데 딸아들이 이쁜 거 많데.. 전부 한방에서 자고.. 밥해서 버지기다 퍼다 줘뿌마 소고기 지져갖고 해주마 잘먹어요. 한뼘새 잇다 가면 저희도 울고 가요. 열다섯 된게 와요 머슴아. 그게 신 신고 총 그거 아가 마 울고 가요. 할부지 피난 잘하세요 우리는 죽습니다 카고...”
“인민군들이 전부 산에 가서 자빠져 자고 온 전신에 풀을 짊어지고 땀. 산에 가서 자고. 7월달인게 올감이 조흥 잇었는데 빨강고 다 따먹고 사람은 해고지 안해. 말로는 여자들 잡아간다 해도 겁나서 젊은 색시들 다 숨었거든. 우리도 사람인데 괜찮다고 나오라 그래. 그래 나왔죠. 겁내지 말고 나오소. 패안테. 밥해주고. 그래 밥해준 거 뒤에 이쪽 사람들이 경찰이 알고 그제 또 죄가 났어. 밥 안해주마 총을 디리대고 사람이 죽겠는데 그럼 밥해주고 살아야지”
“붙들려가갖고. 다른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군대도 아니고 짐꾼으로들에 들에 일하러 가다 붙들려간 기라. 일하고 안들어오면 밥 묵으려 안들어오면 가버린 거라. 충알이 비오듯하는데 사느교. 다 죽고.. 열다섯에 시집가서 스물서이에 죽었응게. 팔년 살았지.

아이 둘 낳고. 남매. 그 딸이 지금 육십하나라. 내 스무살에 났거든”

시집살이

[37]

되박 바까줘요 / 2000. 7. 23
경북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당골,
정장옥 2’41”

“낭구에 물 오르자마 똑 비둘기만한게 요만한게 우는데”
구꾸지집 지집죽고 상채하고
자석 죽고 애통하고
물가전진 수해보네
“슬프지요? 뜻을 새기 보면 참 슬퍼요. 어, 쪽박 바까 달라고 왜 ‘되박 바까줘요, 되박 바까줘요’ 그러잖아요?”
“되박 바까줘?”

“야, 그거는 인자 왜서 그런가 하면, 옛날에 인제 시어머이가 미느리가 밥을 할제는 되박을 작은걸로 쌀을 내 주고, 딸이 밥 할 제는 되박을 큰걸로 밥을, 쌀을 준데요. 미느리 인제 그래 밥을 해 가지고 인제 뭐 어른들, 시동상,시누 다 퍼 주고 나면 밥이 안 남잖아요? 그래서 인제 고걸 인제 ‘되박 바까줘요, 되박 바까줘요’ 이러잖아요”
“며느리가 죽었어요?”
“미느리가 죽어 영혼이 돼 가지고.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미느릴 그리 몹시 했어요”
“딸 하고 인제 며느리하고 베를 짜 이렇게. 딸은 콩을 볶아 주고 미느리는 찰밥을 해 주

데. 손에 인제 붙으면 그거 뜯어 먹느라고 베를 못 짜라고, 딸은 인제 콩을 볶아서 인제 주니께로 굶으니께 집어 먹기 쉬우라고 그랬는데 아 요놈은 하나씩 주워 먹느라고 베를 못 짜거든? 며느리는 고만 그 꾸릿물이라고 갖다 놓고 베를 짜요 옛날에. 그래 꾸릿물에다 그만 손을 덩빙 적서가지고 밥을, 찰밥을 이래 손으로 꼭 지 가지고 고만 입에 넣고 고만 베를 짜네. 딸은 이제 콩을 손으로 한개씩 집어 먹느라고 못 짜. 그렇게 인제 바까졌어. 바까주니께로 이 놈의 또 딸은 그 마른손으로 집어 먹으니 손에 붙어 가지고 못 짜네, 손에 붙어 가지고 그놈 뜯어 먹느라고 못 짜지? 또 미느리는 고만해 콩을 입에다 한웁큼 톱 털어 넣고 짜고 짜고, 그래도 미느린 그렇게 미와, 옛날에는. 우린 시할머니한테 시집살이 했지, 시어머니한테 했지, 또 인자 미느리한테 또 하는 거라. 미느리 오면 밥상 차려다 줘야 돼”

[38]

시집살이 노래 / 2008. 3. 9
경북 칠곡,
우상림 4’ 29”

“내가 듣고 다른 사람하는거 듣고 발매는 것도 그 때 배웠고 그때 들은기지. 오명가명 들었어요. 내가 한번 들은 건 안잊어버리거든여”

(시집살이노래)

“3일만에 새메느리 발매러 보냈거든. 날은 더워 쨍쨍한데 불겔이 더운데 발은 짓어서 한골매고 두골매고 삼시번을 걷어 매도 다

른 점심 다 나오는데 이내 점심 안오네. 인제 집에 찾아 가니까 시아버지가 (발매는소리 내용) 예라 물러서라..그걸 일이라고 때려쳐라. 막 나가라케이. 밥이라고 주는 거는 삼년묵은 보리밥을 사발독에 발라주고 장이라고 주는 거는 3년 먹은 꼬랑장을 접시굽에 발라주고.. 숟가락은 십리만큼 던졌다가 오리만큼 줘다 주고. 구래 머리깎고 삭발하고 중되러 가서 자기 신랑이 이제 서울가서 내려와요. 그래 3년만에 돌아온게 집이 쑥 대밭이 돼버렸어. 다 망해버렸어. 시아버이 앞에는 호랑꽃이 피어있고, 시어머니 앞에는 양살꽃이 피어있고, 시누아지 개살꽃이 피어있고 시동생 앞에는 용심꽃 피어있고. 자기 신랑은 앞에는 함박꽃이 피었더라. 그래 신랑이 좋아요. 그래 그 새댁이 가는기라. 헤헤헤헤”

“옛날엔 메뉴리 밥을 안줘 바싹 말라버려 밥을 안줘요. 쌀을 시어머이가 주고 밥하면 싹다 가져가버려. 시아바이가 좋아요. 그릇에 물을 뷔갓고 다 먹었다고 말아서 남겨주면 메느리가 묵고 그것도 시어마이한테 들키마야단이 나니 다 뺏겨요. 내 시집가서는 안그랬어요. 그때는 시어머니들이 덜했어요. 마이 소동이 낫더근.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럼 그집 망해요. 이쪽에서 사돈 팔촌까지 다 나가요. 가서 살림 다 뿌좌버리고. 그래서 그 뒤에는 좀 덜했어”

“재를 넘어서 시집 가는데 시집에서 쫓겨 진정으로 가고 또 쫓겨서 왔다갔다 하다가 호랑이가 물어가서.. 젊은 새댁 호식해가는 거 봤다. 전부 몽당이 들고 가서 때려부시고 불질르고 그래 망했어요. 그 뒤에는 좀 덜했어 우리들 젊은 시절에. 산중에서 나온 얘기”

[39]

신랑시집살이 / 2000. 4. 23
경북 문경 둔덕산 수리봉마을,
김갑순 1’59”

“아이구, 그래 이 신랑도 그전에 들에서 일하다 말고 미친사람매고 지게 작대기로 둘러 매고 때리 지긴다고 그전에 그래서 나 무서워서 벌벌 우르르르 쫓아 내리..막 우르르르르..”

“말도 못 했어 저 집 신랑”

“옛날 얘기다 진짜...”

“맞아요. 집에 안방에 맨날 숨어가 있을 때 그때 발발발 떨고”

“들에서 일하다 말고 왜 그리 미친짓을 해? 때리 지긴다고. 지게 작대기를 이러이 둘러 매고 눈이 싯벌겅게 우르르르 막 쫓아오면 막 겁이 나가지고 맨발로 쫓겨서 우리집에 오네. 우리집에 오면 고 장농 구석에 요래”
“옷 보따리 싸가지 나와 가이고 못 가고집에 집에 동시집에 하도 말리서 못가고 붙들릿잖아”

“아이 인정스럽게 잘 하면서도 그렇게...”
“지게 작대기를 둘러매고 우르르르 쫓아 오면 나도 그만 겁이 나서 나도 내 빼야 되겠다, 그러면은 번개 같다 미치 못 피해매만 고만 맞는거야. 고 한차리 얻어 맞아 봐, 나만 병신 되지...”

“그래도 그래도 비기고 맨날 그리 쫓기 내빼야고 그러지 그럴때 안 쫓기 내뺐으면 맞아 죽었어. 맞아 죽었는데”

“죽거나 죽으면 하지 병신 돼. 그 억신 손으로 때리서 골뱅도 들었을꺼야”

“집에 마당에 그 돼지 저기 여 말랑에 큰 돼지 믹일적에, 집에서 있을 때 믹을 적에 그

돼지가 나와가이고 얼른 안 가줬다고 큰 돼지 그거는 말도 잘 안 듣더라고요 가둘라 하니까 혼자. 그 얼른 안 가줬다고 그 마당지 짜리빋자루를 까끌로 들고 여 전대팔을 얼마나 미기 댔는지 세상에 고만 빌안간에 전대팔이 이렇게 되드라고. 그래 요 옷도 못 벗고”

“요 쪼만한 사람 뭐 때릴 끼 여자들 그 약해서 빠진거 장정이.. 마당에다가”

“밥상도 날라가고, 밥술도 걸렁하면 날라가고 그랬어요”

기막한 신세

[40]

산골사람 / 1999. 11. 14
경남 거창 덕유산 산수리,
김금이 1’36”

“친정은 밀양 청돈데요. 살기가 곤란해가 우리 아버지가 저 참 밀양 청도 사람인데 그래 인자 살기가 곤란해 갖고 그때는 숯산판이 안 있소 산에? 숯산판에 있을 적에 참 이 고란이라고 저작 넘에 고래 거게 숯 꾸러 왔어요. 숯 꾸러와 갖고는 날 텔고 와가지고 물끼 하도 없었고 간구하게 살고 산판도 그때는 다 해지 돼뿌리고 그래 갖고 마 살 일이 없은께, 나를 막 여 니나 묵고 살아라 하면서 나를 이 땅에 심가 놔놓고 그래 놔 놓고 그래 또 살기가 곤란하니 전라도로 간기랴요 우리 부친이. 나 아홉살때 무가 나왔으니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 된 기랴요. 나 열네살에 이 골짜에 주 넣어 버리고 그래 마 전라도로 넘어가서 우리 아버지는 세상 떠버리고, 인자

는 죽도 사도 못하고 참 옛날에는 법으로 살
기 때문에 시방은 자유대로 안 삽니까? 그
런데 옛날에는 법으로 살았거든요. 그래 우
리 할아버지 말씀이 이케요. 막 달아 날라꼬
내가 달아날라고 그리 여산을 해도 어데가
어텐지를 몰라서 못 달아났어요”

[41]

신세타령 노래 / 2005. 9. 11
경북 봉화 구마동계곡,
안창수 1'48”

시집을 갈라고 한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가
없으니 중매자가 어딴나 / 내 눈이 멀어서
시집이라고 가니야 앞뒤가 절벽이고야 본
다는 것이 낭길세 / 정든님아 내손 잡아주
게 부모없는 시집이 이르케도 슬프나 나도
야 남날 적에나 낳건만 / 남들은야 호화호
식을 하는데 이내 나는 우리 엄마가 날 가질
적에 고비고사리 자셨는지야 / 나는 왜 이렇
게 고생이 되나 /

“이게 신세타령이래요”
“아이고 잘하시네.”

[42]

아끈이 / 2005. 9. 18
강원 태백 함백산 사내골,
김하야 3'42”

“이름이 뭐, 이름 다 잊어 버리, 쪼매할 때 부
르던 이름 내가 아니껴. 지금은 뭐 이름 부르
오? 아 아바이라 어마이라 부르고 그렇지.
아무개 엄마라고 그래고 뭐 앞글자를 쓰기
도 하고 김하야라고 쓰기도 하고”

“김하야?”

“예, 아끈이이라 하기도 하고”

“아끈이.”

“아끈이라는거는 내가 시집 와서 이름을 가
르쳐 달라하니 안갈차 주니 이름으르 지 가
지고 그래 하기때مین에 그래 아끈이이라고
그래”

“왜 이름을 안 가르쳐 줬어요?”

“안가르쳐 줬어. 뭐할라고 가르쳐 줘. 뭐 이
름을 가르쳐 줘? 그러다 보면 애가 나지 뭐.
아 나면 또 아 이름 부르고 그래지. 그렇지
뭐”

“아버지가 아들 벌어 멕이기 싫으니 도망 갔
부렸어”

“도망갔어 또?”

“응, 그래 엄마가 벌어 먹이느라고. 그래 하
도 고생이 되니 한입이라고 든다고 엄마가
여 보냈지”

“몇살 때?”

“열세살에. 그러니깐 엄마 혼자 그 7을 벌어
미자면 죽을 고생 하지 뭐뭐. 만날 떡 장사
하고 묵 장사 하고 두부 장사 하고 만날 그
리 장사 해가지고 어디 장사 하러 가면 엄마
가 들어와야 굴 속에 연기가 나고 이랬는데.
그래 인제 나를 이 산중이라도 ‘배 불리 먹
고, 조밥이라도 배 불리 먹어라 나는 배고픈
포옹이 지니까네 배 불리 먹다 죽어라’ 하
미 그래 산중에”

“우리 엄마가 미기 살리느라 아주 죽을 고통
받고 아침에 떡이나 뭐 묵이나 이래 해 이고
가면 저녁에 해가 저서 들어 와. 들어오면 엄
마가 들어오면 그 쌀 떼논거 받아가지고 오
면 인제 불을 떼고 뭐 죽이래도 끓여 가지고
먹고 이랬지”

엄마가 떡 장수도 하고?”

떡 장사 하고 뭐 만날 장사 했지요. 없으니,
그 참 누가 밭 매 달라면 일을 가 일 해주고
“일 하면 또 그 가 일 해주면 점심을 주면 안
잡숫고 가지고 올라 오니더. 가지고 이래 돼
지매로 큰 돼지 마냥 곤두레 뜯어 삶아서 놓
으면 그 놈을 두 재기 이래 싸가지고 그 놈을
막 짜서 썰어가지고 장을 된장을 놓고 지 주
물러 가지고 밥을 드리 부워서 희끗희끗 하
지 뭐. 그래도 뭐 한도랭이 모아가 비벼 놓
으면 어느 귀신이 된 죽도 몰라요. 맛도 좋
고. 요새는 허연 이 밥도 먹기 싫어 드리지
고 내시고”

[43]

아이농기 / 2000. 2. 6

경북 김천시 부항면 해인리 해인동,
이종출씨 부부 1'26”

“그래가지고 인제 새복에 인제 아 기미가 있
어서 인제 놀라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인제 머
리 깎는 이발소가 있어예. 이발소가 인제 우
리 작은방에 와서 누 자요. 새복인데 뭐 5시
됐는데 뭐 정월달인데 뭐 깜깜하이 어둡지
요 뭐. 그래 인제 그 사람들 몰래 그래 인제
놀라고 인자 배가 아파도 지집아를 하도 놓
기 때미네 꿈꿨고 인제. 그래가지고 인제 호
롱불이 저 구석에 저 가서 있어요. 구석에다
인제 호롱불을 뽀 하이 써 놓고 있는데 그래
인제 고마 옷도 다 입고 났다한게요. 옛날에
는 처마 입고 막 꼬장주 입고 그랬거든요. 옷
도 다 입고 그래 낳는데. 그래 요번에는 속아
보자 싶어서 그래 사타리에 요레 손을 올려
가지 한번 잡아 땡기 본게 그래 잡아 땡기는
게 있어. ‘아이고 이거 잡아 땡기는게 있네’

그 칸계 막 저 양반에 고만 안왔던 지집아를
꽤 집어 던지디만은 저 호롱불을 쫓아 가져
온것이노 호롱불이 툭 꺼지버리요 고마. 그
가져 온게 안 그렇겠어요? 세게 가져 온게.
툭 꺼지는데 그래 또 뭐 성냥이 금방 준비 해
놓지도 안하고 저 양반이, 성냥을 찾아가지
인제 불을 켜가지고 요레 본 것이나 잠지가
달릿는데 저 양반이 고만 좋아가지고는 내
가 낮으로 가지고 땃줄 끊는다고 하면서 막
낮을 가지고 쫓아 땡기고 낮을 가지고 들고
뜨드러 가지고 낮으로 가지고 땃줄을 그리
끊었다 한게 그 아들이 올해 스물아홉, 돼지
띠, 그래 올해 장개 간다고 인제”



놀다

놀다

[44]

산 / 1999. 11. 7

경남 거창 덕유산 상남리,
최주현 0'57"

“산에 가면 놀기가 좋데. 그래서 동무들 청
해가지고 산에 가서 뭐 하루 종일 산주령이
나 타고 돌아댕기며 놀다가 내려 오고. 그 이
상은 없어요. 그 전 보령에 해망상 그 주령이
그 저리 해서 승주산으로 저리 뻗었잖아요.
산 꼭대기 어디 올라가서 바다니까 바다 인
제 넘겨다 보고 서서 이러고 저러다 하다 보
면 해가 다 가고. 지금도 인제는 다리가 아
파서 못 가서 그렇지 지금도 산에 가면 기분
이 좋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아무 잡념도 없
어지고 이리 마을 사람들하고 실컷 앉아 놀
고보면 남의 말 들어보면 어떤 사람 부자도
되고 어떤 사람 뭐 누구한테가서 싸움도 하
고 이런 공상이 안떠오르고요. 산에 올라가
면 참 좋아요”

[45]

담배쌈지 / 2006. 4. 9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청학동 안말,
박인실 1'14"

“옛날에 우리들 시집 올 적에는 시아버이 담
배쌈지 해 왔어요. 요만한데가 꽃을 놔 가지
고 거게다 인제 단추 달고 이래고 거다 인제
부싷돌, 부시. 그래 넣어 가지고. 옛날 성냥
도 없었잖아요 그렇게. 부싷돌이라는건 인
제 찾돌 있잖아요 하얀거, 그거 타고 또 넣으
면 쇠쪼 요만한거 그기 인제 그 차돌에다 이
렇게 이렇게 캐면은 불이 나가지고 거거 쑥
에 붙는단 말이야. 또 시할머이 계실적에는

꽃 주머니, 수 놔 가지고 꽃 주머니 이래 하
면 그 할마이들이 차고 땡기면 자랑하잖아
요 그것도 해 오고. 나도 시집을 적 클 적에
수를 많이 낚어요 나도. 태극기 수 놔가지고
이러 갖고도 넣어 가져오고 또 이러 저 장미
꽃 이런걸 인제 비갯막으로 해 가지고 퇴침
이라고 있어, 퇴침이 인제 삼촌이 많으면 그
걸 하나씩 주고.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들”

[46]

꽃노래 / 2008. 3. 16

경북 칠곡,
우상림 3'50"

(꽃노래)

“택호 불러가지고 사람 얼굴 보고 지어요.
장고방에 봉숭아는 칠곡댁이 꽃일레라. 높
은 낭에 살구꽃은 키큰사람 인물이 좋은 사
람은 복숭꽃 하고. 봉숭아는 얇전하고 봉숭
아처럼 생긴 삶. 흰칠하고 인물 조오마 복숭
꽃이라 해. 장미꽃은 이쁜 새댁. 향기좋다 장
미. 살성 좀 검고 그럼 도래꽃이라. 도라지
꽃이 검거든. 매화꽃은 복실복실. 양전고 이
쁜 사람 매화꽃. 메물꽃이 젤 오래 잊거든요.
오래 살고싶은 사람 메물꽃. 그게 7월에 피
마 8-9월까지 있어. 덜렁덜렁한 싱거운 사람
은 이산저산 진달래꽃이라고. 사람 보고 지
요. 그 꽃이름 내가 다 지웠어요. 사람 보고”

“새댁이 오면? 3월달에 희초 하거던. 그 때
미늘네들 하루 풀어나 주는 거라. 멋대로 놀
아요. 산에 가서 춤추고 놀고 노래하고 놀
고... 장구도 가 치고. 그래 하루 노는건 안
뭉락해. 진달래꽃 피고. 일년내에 하루 놀

고 또 추석에 하루 놀고, 추석에도 밤에 마
당에서 춤추고 놀고 그냥도 놀고 정월달에
도 놀고, 모지마 술한잔 먹고 노래하고 춤
추고 칭 칭이도 하고, 모디면 칭칭이 했어.
마당에서 하고, 추석 때도 칭칭이하고”

[47]

화전놀이 / 2007. 9. 30

전남 고흥,
정영엽 1'09”

“3월달에 화전함스로 올라감스로 다 인제
밥이랑 술이랑 그냥 올라갔다 내리올때
그렇게 인제 묵고 취하게 완전 그렇게 내려
옴스로 노렐 해. 저 흑한데가 우리 산이거
든 다 묵고 점심묵고 느지름허니 내려옴스
로 오는 거여. 질가락도 허고, 회도 쭈꾸미
참오징에 해가지고 미나리. 히갓고 새콤하
니 해갓고 묵고 놀다가 완전히 놀다가 내려
옴시로 제화종소도 하고 질가락도 허고 옛
날 시대가 좋은 거여. 잘 놀았어. 옛날 시대
가 제일 좋은거여.”

“잘 놀았어요”

“네, 잘 놀았어요”

[48]

농사장원 / 2007. 9. 30

전남 고흥,
정영엽 2'40”

“질가락은 농사지놓고 들에 나락 놀장할
때 화전 함시로 질가락 하제 농사 장원했다
고 논 갓으로 햇불 잡고 화전하고 내려옴스
로도 질가락 하고.. 화전놀이 감시로 갓다
옴시로 위야허리방호도 하고.. 다 해. 걸어

감스로 줄줄이 춤침스로 북 두드림스로 북
하나 동당 두드림스로 질가락 하고”

(질가락)

“농사잘허는 사람들은 농사 장원리 내놔,
그럼 밥도 해내고 술도 걸러내놓고 만물도
다 끝나불고. 한 집이서 내는거 아니고 이
집 저집 밥 술 내고 어울려서.. 그러면 횃불
잡고 저녁에 대를 찌서 기름 담아갓고 솜을
넣어서 햇불을 하나씩 해서 동각에서 먹고
놀다가 횃불을 잡고 논갓으로 몽쳐서 땡게.
밤에 해가 누그름 하면 밤에 뽕뽕뽕 호롱
불이 춤을 추고 땡게”

[49]

술독 / 1999. 10. 10

전북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허판성 부부 0'49”

“아무끼라도 해주면 잘 묵데 그냥. 수제비
도 끼리 주면 잘 묵고 팔 죽도 끼리 주면
잘 묵고. 내가 해 주면 맛있다네 모두. 먹
고 소주랑 술이랑 뽕시랑 막 몽땅 묵으면
은자 술이 취해서 등글어 내려가 여기서.
눈 발에는 막 서로 질질 끌고 가가 마 내려
다 보면. 그럼 막 너도 넘어 지고 나도 넘
어지고 막... 집에 가면 막 술 많이 줬다고
또 우리 집에서 전화가 와. 아 먹는 사람들
이 알아서 먹어야지 뭐 안 준다고 환장하는
데 어쩔끼냐 그러면 암말도 안해. 아 여 놀
로 와샀어”

[50]

새쫓기 / 2007. 11. 18

경북 포항,
김선이 1'34”

“우리 어릴 때는 논에 새본다고 요새는 새
도 없지만 옛날엔 새도 얼마나 별났는겨 그
래가 후여후여..하면서 새벽에 일나가 그럼
논에 새 쫓으면 우리 조모가 선이야 일어
나 새 쫓아라 그러거든 그럼 일어나기 싫으
면 할매 쫓아라 할매 쫓아라 그럼 니가 쫓
아야 니새 쫓지. 나가 후여 후여 카마.. 그
럼 아-들이 이집에도 후여 카고 저집에도
후여 하고”

“후여딱딱 꼬두박새야 오늘만 까묵고 내일
일라 저에 정도령 장개가는데 콩나물대가
리나 얻어묵으러 가자 후여... 그 때는 새
떼 많아가 한번 앓았다하면 나락 다 빨아
묵거든”

(새쫓는소리)

[51]

달넘세 / 2007. 11. 18

경북 포항,
김선이 3'58”

“놀 때 널 안뒀면 월리리청청 아니면 할게
없거든. 아-들 손불잡고. 월리리청청. 우리
친구들 열이고 스물이 나와가지고 하고...
마당도 널려요. 우리 클 때는 마당이... 색
시들 친정은 색시들 마카 월리리청청 한다
고 결혼한 부인들도 남 집 며늘네도 하고.
친정왔는 사람들 어불레 놀고”

(워리리청청-달넘세)

“우리 저 세시절에는 보름 팔월때론 친정

가고 잇는교. 추석때는 친정 못가지. 설에
도 못가고 일년에 두번씩밖에 못가지. 보
름날 찰밥해먹고 옛새날에 가고. 보름날은
못가고 옛새날 가고. 8월에도 보름에도 열
옛새날이. 보름날에도 손님 처야지. 옛새날
은 손님 오든 마든 무조건 친정에 가는 거
야. 사흘도 잇고 하루밤 자고 오고. 어른들
이 메칠 잇다 오너라 하면 날 딱 받아두거
든. 처자들하고 시집온 각시들하고 하고 요
만큼한 아-들은 즈그거징 또 하고.. 넘세님
세 달넘세도 하고”

[52]

어디 가 손데 / 2007. 9. 30

전남 고흥,
정영엽 1'45”

“너이서 큰애기가 하나 서고 양쪽에 스고
하나나 오개에 올라양저. 둘이 잡고 (기마
전식) 앓어갓고 춤침스로”

*어디가 손데 / 절라감사가 손데 / 잔자잔짜
크나 작으나 내 동무 /*

“그람서 막 등어리 올라서 춤을 취여 저작
이작 마주보고...” *우리 참구 많던 친구 골
골이나 다빌리고 술잎으로 뿌린 듯이 땃잎
으로 재긴듯이 골골마다 다 가리고 친구 하
나 볼수 없네 / 어디가 손데 / 절라감사가
손데 / 진짜잔짜 크나 작으나 내동무 /*

“강강술래 하다 말고 뚝 떠버리고 너이씩
갈라서 하는 거여. 신명이 낭게 어디가 손
데 하자고... 너이씩. 타기도 하고... 밀엿놈
땀 찌찍 흘려. 그라고 옛날에 논거이 재밋
엇제”

[53]

버스 탄 소 / 1999. 10. 10

전북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허판성 부부 0'47"

“장계장에서 소 사가지고 오는데 이 양반이 술을 많이 묵었어 나랑 함께 갔는데. 세상에 오십리리를 함께 걸어 올라니 걸어와? 사람이 걸어와야 걸어오지. 소는 저 근데 사람이 와야지. 버스 기사보고 ‘아이 소 좀 태우고 갑시다 이 양반이 술이 취해가지고 못 가겠네요 재 넘어 가야 되는데 큰 일 났네’ 금게 그 동네 사람들이 ‘아휴 아저씨 좀 태워줘요 저 아저씨 못 가겠네 언제 가 밤새도록 가도 못 다 가겠네’ 금게 소를 버스다 태워. 소 올라가는 데로 가만히 놔두면 되지만은 고삐를 자꾸 잡아 땡겨 술 먹은 사람이 잡아 땡겨 소가 훌쩍 뛰어 올라 온게사람이 뽕 떨어져 어떻게 차에서 웃던가 모두...”

[54]

말장난 # 미색인

전북 김제군 금산면 장흥리,
서금례 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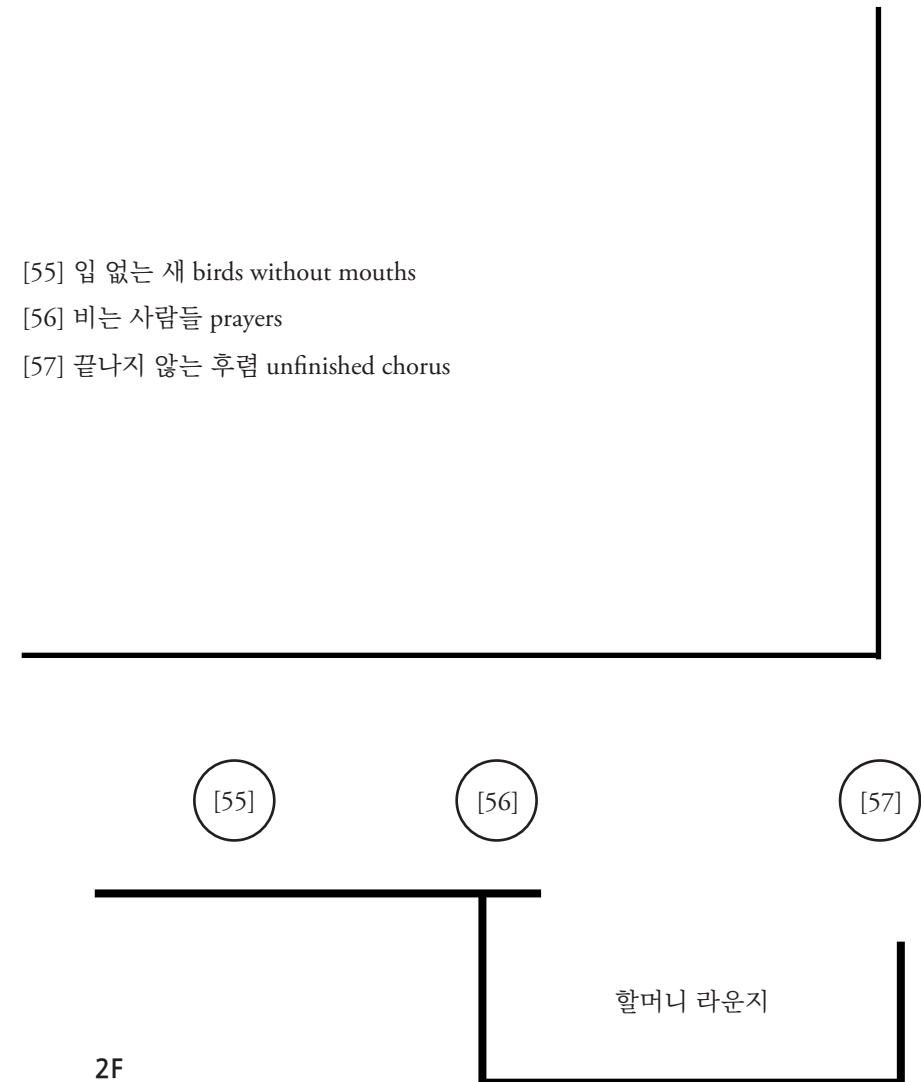
마린 눈에 우렁 진 눈에 대수리
대수리는 꺾더라 꺾으면 까마구
까마구는 날이더라 날이면 비둘키
비둘키는 희더라 희면 영감
영감은 곱더라 곱으면 덕석
덕석은 질더라 질면 배암
배암은 물더라 물면 벼룩
벼룩은 뛰더라 뛰면 노리
노리는 뽕더라 뽕으면 대추
대추는 달더라 달면 엇뽕!

[53] - [54]

* 믹스 포 라운지
소리설치, 김지연

mixes for lounge
sound installation, Jiyeon Kim

[55] 입 없는 새 birds without mouths
[56] 비는 사람들 prayers
[57] 끝나지 않는 후렴 unfinished chorus



김지연

오랜시간 어르신들의 이야기와 노래를 기록하는 작업을 해오셨습니다. 그 계기로, 방송국 자료실에서 사서직으로 근무할 당시 접했던 현장녹음앨범(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발간)들을 언급하셨습니다. 현장녹음field recording과 아카이빙이라는 방법론이 피디님의 역할과 정체성에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류학, 사회학, 민속학 등의 학문 또한 연구방법으로 현장녹음을 활발히 사용하는데요, 피디님의 작업은 그것들과 어떤 차이로 봐야할까요.

최상일

저는 ‘사라져가는 모든 것은 기록될 가치가 있다’는 저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들 중에서 그냥 잊혀져도 좋은 것은 없다는 거지요. 사라질 때 사라지더라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민속기행에서 주된 질문으로 삼았던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나?’라는 질문을 예로 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일상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크게 보면 인류문화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일인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구석기시대에 한반도에서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서 살았다고 열심히 배우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앞선 세대의 어르신들이 기억하고 있는 옛 생활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야 하는 거죠.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이 땅의 ‘민중생활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셈입니다. 이런 일은 인류학자들이 더러 하기도 하지만 전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자들과 저의 역할이 다른 것이 있다면 기록된 것을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인데요, 규칙적으로 방송을 한다는 것은 현장에서 기록하는 일이 지속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지요. 방송은 어쨌든 정해진 시간에 나가야 하니까, 눈에 불을 켜고 제보자를 찾아 헤매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일을 오랫동안 해온 것은 분명히 방송쟁이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하되 한 번 듣고 마는 내용을 방송할 게 아니라 뭔가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내용을 찾은 것이 다른 방송쟁이들과 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겠지만요.

저는 이번 작업을 하면서 피디님을 충실한 기록자일 뿐 아니라 통역가, 해설자로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피디님의 이러한 역할이 할머니들이 갖는 문화사회적 역할과 유사한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연

이번 아카이브에서 다루고 있는 시리즈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현장인터뷰 녹음과 피디님의 코멘트가 교차하는 형식을 동일하게 갖고있습니다. 이러한 포맷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최상일

민속을 기록하는 사람이 현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방송 청취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해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인터뷰한 것을 전부 그대로 방송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이야기를 골라서 편집해야 하는데 그럴 때 저의 생각이 개입되는 것이죠. 이미 인터뷰를 할 때부터 저의 생각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도 하구요. 이런 것은 다큐멘터리 방송에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다큐멘터리 작가 또는 연출자의 보람이기도 하구요. 저는 작가도 없이 제가 모든 걸 혼자 하기 때문에 그만큼 할 일도 많지만 재미도 많이 느끼지요.

할머니들의 역할과 저의 역할을 비교하셨는데, 할머니들은 살아가면서 전통문화 그 자체를 몸으로 구현하는 주체인데 비해 저는 중간에서 관찰하고 기록하고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중개자일 뿐이니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는 좀 남다른 일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일이 뭔가 특별한 깨달음이 나 사명감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크게 보면 전통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눈앞에서 급속히 사라지는 전통문화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처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것이죠.

민요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된 것은 여행기 형식의 라디오 다큐멘터리가 조금씩 쇠퇴하기 시작한 80년대 후반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독립된 피쳐feature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내레이션 없이 현장에서 녹음한 소리만을 갖고 구성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일주일에 한번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해야하는 상황에서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었지요. 라디오는 평범하게 하되, 여러차례 들려주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의 경우 비슷한 포맷으로 20여년 넘게 현재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 광고라고 하기엔 길고 방송이라고 하기엔 아주 짧아요, 40초 남짓이거든요. 근데 이 포맷이 청취자에게는 인지도가 매우 높습니다. 라디오는 배경에 스미는 생활 속의 소리로 가야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민속기행> 시리즈는 광고 제하면 17분, 내용적으로는 10컷 정도가 필요한데, 결국 많이 압축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분위기만 녹음으로 전달하고, 후에 내레이션을 삽입하여 내용을 정리해주는 형식이 되었지요. 내레이션은 늘 줄이려고 노력합니다만.

많은 할머니들을 만나고 얘기 나누시면서, 그분들의 말이나 목소리에서 어떤 힘이나 기운 같은걸 느끼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산골 할머니들이 새소리를 흥내내면서 죽은 사람들의 한을 대신 말해주는 가사를 붙여 의성어로 모사하는 것이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분명 유희적인 따라부르기 놀이인데, 억울한 이들을 달래주는 느낌도 들고, 또 어느순간 그들의 넋이 대신 되어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김지연

신기가 있는 할머니들을 가끔 만났지요. 그런분들은 산삼도 꿈에 현몽으로 꿔다고 하고, 자기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할머니들이 대체로 자연과 소통하는 모습, 특히 산골에 사는 할머니들이 산신과 소통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하면 반드시 들어주고 그분들이 오싹한 느낌이 들때 산신에게 기도하면 금방 평안을 되찾는다고 하시지요.

제가 생각하기에 할머니들은 영적인 존재와 공감하는 능력이나 감수성을 타고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약자라는 것은 자연의 힘을 더 느끼고 경외심을 갖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심정이 좀 더 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제 시대를 산 사람들은 그런건 다 미신으로 치부하고 타파하려고 했지만, 할머니들은 집안의 사제역할을 숨어서라도 해야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감수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령의 존재를 더 예민하고 느끼고 또 의식적으로 그것을 노력한 측면도 있지요.

내성적인 저의 성격을 변화시킨 것도 할머니들입니다. 내 할머니같은 다정한 할머니들을 만나 이렇게 너스레를 떨 수 있는 성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인생에 깊은 깊이를 배웠습니다. 노인네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먹고 산거예요. 먹고살고 자식을 놓은 것. 생존과 번식. 물론 하나 더 있다면 이웃과의 교류 정도이지요. 굉장히 단순하고, 그게 그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내 인생은 뭐가 얼마나 다른가. 결국은 산다는 것의 의미나 가치는 다를 것이 없거든요. 노인네들은 맛있는 옥수수, 감자를 길러서 자식과 이웃에게 나눠주지요. 일의 산물이 남을 이롭게 한다는 면에서 다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최상일

할머니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할머니의 다양한 측면이 있죠. 인고의 역사를 겪어온 존재이고 가난한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식구들을 살려낸 조왕님같은 신이기도 합니다. 조왕님은 부엌의 신인데, 결국 할머니가 신인 셈이죠. 민속 의례를 주관하는 사제역할도 했지요. 칠성단 가서 빌고, 고사상 차려놓고 빌고, 조상단지니 뭐니 집안의 중요한일은 다 할머니들이 빌었습니다. 우리 민속의 큰 줄기를 잡고 온 분들이지요. 그리고 얘기 낱고 기르는 생산자로서의 여성, 세대를 이어주는 삼신할머니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험한 세월을 이만큼 버텨온건 할머니들의 공덕이었을거라 봅니다. 보이지 않는데서 귀신처럼 정성을 내려주지요. 자식이 어디 먼길만 떠나도 정한수 떠놓고 비는게 할머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소지 올릴때 하나같이 얘기하는게, 자기 자식과 손자손녀의 건강과 행복이지요.

김지연

자기 뱃 속으로 아기를 낳고,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 결국 음덕을 쌓는 일이고,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할머니입니다. 최근에 한 미술잡지에 원고를 청탁받아 글을 쓰면서 우리 할머니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새삼 정리를 해보게 됐습니다. 나이든 경험 많은 여성으로서의 존재. 할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할아버지가 젊은이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어른과 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우리사회는 급속히 바뀌어서인지, 할아버지들은 완전히 뒷방 늙은이, 퇴물일 뿐이지요. 늙은이에게 지혜를 구하는 젊은이도 없고요. 그런데 할머니들은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의례가 점차 사라지면서 그 역할이 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할머니란 여전히 신과 인간의 매개체 역할을 가정단위로 하는 사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할머니들은 남자보다 오래살기도 하고 충기가 좋아서 훌륭한 전달자의 역할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기억력이 좋아요. 할머니를 한 분만 만나도 수십가지 노래를 녹음하게 되고, 또 잡다한걸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오히려 뭘 알고계신지 몰라서 못 여쭙볼 때가 많아요. 민속의 전달자, 생산의 주체, 사람을 살리는 신. 더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최상일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SeMA Biennale *MediaCity Seoul* 2014

할머니 라운지 - 목소리 저편

침침 아카이브

Grandmothers' Lounge: From the Other Side of Voices

Listening Archive

최상일, 김지연

Sang-il Choi, Jiyeon Kim

오디오가이드 텍스트북

Audioguide Textbook

기획 및 오디오 제작 김지연

자료 최상일

디자인 킷-토스트

Editor, Audio Edit & Mix Jiyeon Kim

Archive Sang-il Choi

Design kit-toast